

# 「제1회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 수상작

## ○ 수상작 현황

구 분	공모분야	작가명	작 품 명
대 상(1)	산문(소설)	김충섭	뉴질랜드 철새
최우수상(2)	운문(시)	이상록	달동네이야기
	산문(수필)	문경희	하단포구,노을의 강론을 듣다
우 수 상(4)	운문(시)	이효중	아버지의 다대포
	운문(시조)	김완수	을숙도 울음
	산문(수필)	정미선	강가에 앉아
	산문(수필)	정문숙	까치발을 내려놓고
가 작(4)	운문(시)	강달수	감천문화마을 1
	운문(시)	김미순	몰운대 소나무
	산문(소설)	장운선	문화마을의 아침
	산문(수필)	정애경	다대포해넘이
입 선(6)	운문(동시)	이우식	모래톱이야기
	운문(시)	정동수	천년의 흐름-을숙도
	운문(시)	박영환	을숙도 그 섬은
	운문(시)	김정임	다대포 편지지
	산문(수필)	박혜자	을숙도 풍경
	산문(수필)	신규범	무지개 공단

# 목 차

1. 대상(뉴질랜드 철새) .....	1
2. 운문 최우수(달동네 이야기) .....	15
3. 운문 우수(아버지의 다대포) .....	16
4. 운문 우수(울속도 울음) .....	17
5. 운문 가작(감천문화마을 1) .....	18
6. 운문 가작(물운대 소나무) .....	19
7. 운문 입선(모래톱 이야기) .....	20
8. 운문 입선(천년의 흐름-울속도) .....	21
9. 운문 입선(울속도 그 섬은) .....	22
10. 운문 입선(다대포 편지지) .....	24
11. 산문 최우수(하단포구, 노을의 강론을 듣다) ...	25
12. 산문 우수(강가에 앉아) .....	28
13. 산문 우수(까치발을 내려놓고) .....	32
14. 산문 가작(문화마을의 아침) .....	35
15. 산문 가작(다대포 해님이) .....	51
16. 산문 입선(울속도 풍경) .....	54
17. 산문 가작(무지개 공단) .....	57

# 뉴질랜드 철새 - 대상

김 충 섭

- 1 -

골목에 세워 둔 스쿠터가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안장위에서 뭔가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고양이였다. 조막손만한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그 위에서 천연덕스럽게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선 어미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새끼들은 어미와 빛깔이 약간씩 달랐다. 회갈색 털을 가진 어미와 달리 담황색과 짙은 남색계열이었다. 털 빛깔만 본다면 같은 혈육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미는 비만에 가까울 정도로 몸피가 두터웠었다. 몸을 푼 지금은 눈에 띄게 날렵해졌다. 하지만 특유의 거만함은 그대로였다. 새끼들이 다가오는 나를 보더니 안장 위에서 사뿐히 내려와 어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더 지체했다간 지각이었다. 잠시 망설이다 동네 슈퍼에 들러 참치 캔을 들고 나왔다. 캔을 따서 녀석들 앞에다 두었다. 하지만 녀석들은 참치 캔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투로 판전을 피웠다. 스쿠터의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가며 백미러를 통해 다시 한 번 녀석들을 지켜보았다. 그때서야 어미가 길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더니 새끼들을 대동하고 참치 캔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다.

가게에 도착하니 역시나 지각이었다. 주문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이다. 일주일 중 가장 바쁜 날이다. 전화통을 붙들고 있던 사장이 나를 보고는 눈알을 부라렸다.

“바쁜 날 인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지각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시계를 보니 10분 지각이었다. 10분 지각한 것치고 너무 가혹하게 군다. 하긴 사장 입장에선 10분도 돈일 것이다. 다른 기사들은 벌써 출근해서 배달 나갔다고 사장은 말했다. 배달 주문이 많이 밀려선지 내가 옷 갈아입는 사이에 사장이 직접 가스통을 굴러 차에 싣고 있다. 사장이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며 빨리 가라고 다그친다. 그런데 쪽지에 감내1로 0길이라고 적혀 있다. 문제의 집이다. 골목입구에서부터 집 앞까지 오르막 계단이 한참 뻗어 있는 곳이다. 차도 올라

갈 수 없고 오토바이도 다다를 수 없는 곳이다. 어깨에 가스통을 짊어지고 꼬박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곳이다. 경사도 가팔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녹초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아침부터 굉장히 일진이 나쁘다.

계단 입구에 도착하자 저 만치서 한 여자가 서 있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항상 가스배달이 늦다며 투덜대던 그 아저씨가 아니다. 가스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간다. 어깨를 짓누르는 쇠덩어리의 육중한 중량감이 그대로 전해졌다. 식은 땀이 전신을 타고 줄줄 흐르고 호흡도 가빠왔다. 다리도 후들거렸다. 내게 있어 이 계단은 지옥으로 통하는 관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이곳을 감천문화마을이라 부르며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구름처럼 몰려온다. 저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언어를 재잘대며 셀카봉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골목 이곳저곳을 찍어댄다.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뭔가 그럴듯한 문화체험을 했다는 식으로 자랑할 것이다. 그들에게 신기하게만 보이는 미로 같은 골목길과 가파른 계단은 나 같은 가스배달원들에겐 최악의 난코스에 해당한다. 가스배달원 뿐만 아니다. 이곳은 중국 집배달원, 이삿짐 직원, 우편배달부 등 계단을 밟아야 하는 모든 배달원들을 절망으로 빠트리는 곳이다. 가끔씩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느 게 진짜 이곳의 화장기 없는 맨얼굴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투명스럽게 내뱉었다.

“전에 살던 아저씨가 가스통과 호스까지 다 가지고 가 버려서 며칠째 밥도 짓지 못하고 있어요.”

여자는 부엌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한다. 방값이 싸서 이사 왔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투덜댄다. 여자의 말투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짜증이 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젠장! 그럼 진작 말했어야지 지금 말 하면 어떡해요”

여자를 다그쳤다. 가스통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설치까지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연장가방을 챙겨오지 못했다. 다시 계단을 밟고 내려와 연장통을 들고 와야

했다. 여자는 앓던 얼굴이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붉게 물든 얼굴이 대학 초년생 아니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대로 보였다.

방은 아직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선지 가재도구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어수선하게 널려있었다. 작업은 간단했다.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밖에 있는 가스통에 줄만 연결해 주면 되었다. 방 하나에 주방과 욕실, 그리고 거실이 딸린 문간방이었다. 여자 혼자 지내기에 좁은 집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사진 계단을 오르내리며 생활하기엔 상당히 불편한 곳이었다. 여자는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는 성격의 소유자 같았다. 호스를 고정시킬 핀을 박고 있는 내 옆으로 다가와선 이거 안전한 거죠, 그죠? 라며 연신 물어왔다. 귀찮아서 대답을 하지 않자 여자가 다시 물어왔다.

“일이 참 힘드시겠어요.”

역시 대꾸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시키고 계산을 해보니 1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가스통 대여료, 가스 값, 그리고 설치비 등을 포함하니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 여자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그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여자는 거의 사정하는 수준으로 하소연 했다. 부품 값은 거의 원금만 받고 또 계단 올라오는 수고까지 합치면 더 받아야 되는데 아가씨 사정 생각해서 이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다. 수중에 돈이 바닥나서 계산 치르고 나면 생활비가 없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다음 주면 돈이 생기는데 외상을 하면 안 되냐며 사정하기까지 했다. 붉게 충혈 된 눈망울,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궁색해 보이는 살림살이, 만약 그녀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정말 비정한 사람으로 몰릴 것만 같았다. 여자에게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가게로 전화하라고 한 뒤 계단을 내려왔다.

퇴근길에 고양이 세 모녀를 다시 만났다. 녀석들은 나를 보더니 하던 동작을 멈추고 꼬리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다. 다시 쓰레기봉투를 찢어발긴 뒤 내용물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 골목에는 유독 고양이가 많다. 발에

채일 정도고 눈에 밟힐 정도다. 골목 구석구석, 건물 틈서리마다 포진해 있다. 녀석들은 필요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있다. 인간들의 영역에 침범해 더 부살이를 하는 성가신 존재가 아닌 당당하게 영역을 공유한 경쟁자처럼 군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적갈색의 우중충한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서로 어깨를 부비며 들어서 있는 곳이다. 강동병원을 지나 신촌 초등학교로 들어서는 골목을 중심으로 연립주택들이 줄지어 선 곳이다. 일설에 의하면 이 동네는 1959년 사라 태풍으로 이재민이 된 사람들이 몰려와 정착했다고 한다. 거기다 일대에 신평공단이 들어서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방을 나와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매일 아침 일터로 출근했고 해가 지면 다시 골목으로 들어오곤 했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 바로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얼굴만 눈에 익은 주민들과 데면데면 지내왔다. 이곳에서 매일 밤 나는 잠을 설친다. 옆 건물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때문이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윈도우 창이 열릴 때 들려오는 시그널 음향, 양칼지게 울어대는 고양이 울음, 누군가가 다투는 소리, 심지어 인근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가끔씩 사격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그 소음들로 인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곤 한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귀로만 들려오는 그 소음들 때문에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타인들과 공동생활을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만약 천장과 지붕, 벽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내게 어떤 거대한 숙소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 곳에서 들려오는 교향곡 같은 소음들은 누군가가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소음들이 가끔 내게 위안을 준다.

- 2 -

며칠 뒤 감내 1로 0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자가 미수금을 갚겠다고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는 며칠 전의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던 행색이 아니었다. 한결 여유를 찾은 표정으로 새로 이사 온 방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만 원권 지폐가 든 흰색봉투를 건네주었다.

- 4 -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가스는 잘 나오죠?”

여자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냥 돈만 받고 나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나오기가 뻘했다. 여자도 쭈뼛거리는 품새로 시선을 내리 칸 채 멍기적 거리고 있다. 뒤돌아서려는데 여자가 말문을 열었다.

“혹시……. 이것도 해 줄 수 있나요?”

“필요?”

머뭇거리던 여자가 욕실로 나를 안내했다.

“저기 저 타일요?”

여자는 손가락으로 양변기 바로 앞에 깨진 타일바닥을 가리켰다. 금이 가 거의 두 조각난 타일이 땀통자국처럼 흉물스레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것도 주인이 보수를 안 해 주나보죠?”

“방 값도 싼데 하면서 아예 신경을 안 써 주네요.”

여자는 타일바닥을 보곤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여자와 정면으로 시선이 마주쳤다. 눈썹이 유난히 짙은 여자였다. 이마도 넓었다. 콧잔등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건재상에 연락하면 고쳐줄건데, 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예전에 건재상 납품 다닐 때 타일 공들이 작업하는 걸 결눈질로 몇 번 본적이 있긴 있었다.

“까짓것, 이거 잠시만 손보면 되는데…….”

여자가 금방 화색이 도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해 주실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신경 쓰이고 눈에 거슬렸는데.”

여자는 필요이상으로 반색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재료를 사 가지고 올 테니, 라고 한 뒤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 왔다.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사장의 독촉전화였다. 배달이 밀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스배달 보다 더 시급한 건 여자의 욕실에 있는 타일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차를 몰고 건재상으로 달려갔다. 타일용 시멘트와 접착제, 모래, 그리고 바닥 색깔과 얼추 색깔이 비슷한 타일 몇 장을 고른 뒤 쏘살같이 달려와 계단을 올랐다. 시멘트를 이겨 바르고 금이 간 타일을 떼어내고 접착제를 붙이고 새로 사온 타일을 붙였다. 당연히 새로 붙인 것과 원래 있던 것 사이에 색깔의 차이가 났다. 마치 인조이빨을 해다 박은 것 같았다. 하지만 깨진 채로 방치해

두는 것보단 훨씬 나왔다. 여자는 타일 붙이는 작업을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다.

“아저씨 재주가 참 많은 거봐요.”

여자가 내게 처음으로 아저씨란 호칭을 사용했다.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이래저래 돌아다니며 결눈질로 본 건 많아요. 그리고 아직 아저씨 소리 들을 정도의 나이는 아닌데요.”

“그런가요? 그럼 뭐라 부르죠?”

“글쎄요. 마땅한 호칭이 없군요.”

“거봐요.”

“아가씨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왜요?”

“제가 좀 인상이 험악한 편이라서”

“그리고 보니 좀 그러네요.”

여자가 웃었다. 잇몸이 흰히 드러내고 덧니가 보였다. 여자는 어느새 바로 옆에 바짝 다가와선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여자는 낯선 남자와 단 둘이 있어도 전혀 경계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그 순간 나는 경계심 없이 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를 지긋이 겨안는 상상을 해 본다. 망측한 상상이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한 아름 내 품속에 갇힌 여자의 물결한 살결의 감촉이 느껴지는 것 같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품에 안기거나 안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천주교 재단의 학교를 다닐 때 가끔씩 마리아 수녀님의 품에 안긴 기억이 난다. 수녀님은 항상 말수도 적고 숫기도 없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자신의 제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녀는 내성적인데다 쉽게 상처받는 성격인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걱정된다고 했다.

마테오 세상에 나가더라도 네 곁에는 항상 수녀님이 있다는 걸 명심해라. 힘들고 지칠 땐 언제든 찾아와, 알았지?

그때의 수녀님의 품은 참 넓고 깊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소한 체격의 수녀님 가슴은 세상 전체를 품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했다. 수녀님을 제외하고 또 한명의 여자에게 안겨 본 기억이 난다. 바로 '소년의 집' 시절이었다. 아마 열 살 전후의 무렵이었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웬 여자가 찾아왔다. 젊은 여자였다. 운동장을 가로지른 여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쪽으로 걸어와 자신의 품을 열고 나를 안고 흐느껴 울었다. 정말 서럽게 울었다. 나는 여자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이모라고 소개한 여자는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다시 부둥켜안기를 몇 번 반복했다. 그리고 뺨을 부비기도 했다. 운동장 한 가운데서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말이다.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 여자를 떼어낼 순 없었다. 너무 완강하게 껴안아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자는 내 귓볼에다 입을 맞추고 혀로 쓰다듬기까지 했다. 귓속을 후벼 파듯이 핥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혀로 내 귀를 한참동안이나 어루만졌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여자가 한 행동은 거의 애무에 가까운 것이었다. 자신을 이모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카에게 취해야 할 행동 치곤 유별나고 각별한 애정의 표현이었다. 그 날 밤 원장의 허락 하에 나는 이모와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었다. 그녀와 같이 보낸 그 밤은 생애에서 가장 달콤하고 행복한 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까지 그 여자가 진짜 이모인지 아니면 친모인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여자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혈육관계에서나 느낄 수 있는 어떤 근친성 같은 게 강하게 풍겨 온 건 사실이다. 나는 이모라는 여자에게 엄마의 존재를 결국 묻지 못했다. 이모 또한 내게 엄마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지요? 엄마는 어떤 여자예요? 라고 묻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해야 했다.

여자는 다음날 떠났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여자를 잊는데 한참이 걸려야 했다. 매일 밤마다 그 여자 꿈으로 뒤척일 정도였다. 원장님에게 물어봐도 여자의 행선지를 알아낼 수 없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 여자의 품에 안겨 잠든 그날 밤의 기억은 너무 강렬해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 같았다.

무슨 생각 하세요?

앞에 있던 여자가 말을 걸지 않았다면 달콤한 환몽에서 결코 깨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이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서 가스가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석 달 정도가 소요된다. 석 달이 지날

때까진 여자와 다시 마주칠 기회는 없을 것이다. 여자도 이제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하는 눈치다. 더 이상 지체하는 건 실례가 될 수 있다. 연장을 챙기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퇴근길에 고양이 세 모녀와 다시 마주쳤다. 골목 한 가운데서 어미와 새끼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 어미는 동네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주 새끼들을 선보이곤 한다. 그게 녀석 나름의 새로운 식구를 소개하는 방식일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새끼들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쓰다듬어도 어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방관했다. 개중 누군가는 먹다 남은 생선이라든지 따뜻하게 데운 우유, 햄 소시지 따위들을 던져주곤 했는데 고양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어미가 새끼들을 그렇게 자주 선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부양비를 요구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동네엔 단 한 마리의 쥐도 보이지 않는다. 고양이들로서는 어찌면 당연한 요구인지도 모른다. 대를 이어 이 골목을 지켜줄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세 모녀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이 좋게 큰 마찰 없이 골목 한 귀퉁이를 차지하며 공존하고 있었다.

- 3 -

감내1로 0길로 통하는 계단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경사가 급한데다 계단의 높이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 뼘쯤 더 높다. 계단의 진입로에서 여자가 살고 있는 대문까지는 까마득히 올라다봐야 할 만큼 아스라하다. 그래서 그녀를 찾아가는 일은 매번 어떤 고행을 떠올리게 한다. 천주교 재단의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매주 3시간씩 교리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평소에 수업시간에 잘 집중하지 못하던 내게 교리시간은 아예 수면시간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날 마리아 수녀님이 강조하던 일화 하나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오른다. 산 정상에서 번제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번제(燔祭)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의미를 알고 나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다름 아닌 아들을 제물로 바치다니. 섬뜩하고 전율적인 내용이었다. 수업 중 꾸벅꾸벅 졸다가 그 대목에서 잠이 확 달아나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신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핏덩이 같은 자신의 살붙이를 희생시킬 수 있단 말인가? 아브

라함의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수녀님은 산 정상으로 오르는 도중 아브라함이 겪었을 내적인 번민을 설명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신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확신했으며 이삭의 희생이 결국 이삭 본인은 물론 자신의 구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이다. 결국 구원이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대가로 얻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고 한참동안 의문에 휩싸여야 했다. 사랑하는 혈육을 희생시키면서 얻은 구원이란 게 제 아무리 값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는 반감이 들기도 했다.

여자의 집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며 그녀를 만나러가는 이 험난한 여정이 과연 어떤 구원을 전해줄지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구원?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그녀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구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세면장에 수도꼭지가 계속 줄줄 새는데 어떡하죠?”

이번에는 수도꼭지가 말뚝을 피운다는 것이었다. 다급하게 호들갑떠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쩌면 그녀는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가스 집 배달기사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먹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천진난만하게만 보였던 여자가 실은 아주 계산적이고 영악한 성격의 소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 정작 필요한 건 영선수리공 대신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어리숙한 남자가 아닐까하고 말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녀의 낡은 집이 말뚝을 일으킬수록 그녀에게 다가갈 기회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덕분에 다시 한 번 그녀와 마주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여자의 집에 들어서자 바쁘게 불러내서 미안하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거 금방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그녀는 마치 자신을 찾아온 남자가 맥가이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글쎄요, 한번 봐야죠.”

“되도록 빨리 좀 해주세요.”

수도꼭지 고장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도로 집어삼켰다. 수도배관가게 사장은 노즐에 붙어있는 고무패킹이 닳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워낙 고지대라 수압이 낮아서 가압

펌프를 달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 혹시나 싶어 가로꼭지 수도밸브를 통째로 사 가지고 왔다.

“혹시 여기 물탱크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

여자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투로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할 수 없이 옥상으로 올라가 물탱크의 밸브를 잠갔다. 그리고 다시 옥실로 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은 여자의 말대로 시원스럽게 쿵쿵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질질 새고 있었다. 우선 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잠시 후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자 미리 준비해 간 멍키스패너로 수도꼭지의 밸브를 풀었다. 예상대로 노즐엔 녹물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고무패킹도 상당히 닳아있었다. 수도꼭지를 신형으로 교체한 후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 물탱크의 밸브를 연 뒤 다시 옥실로 와서 수도꼭지를 틀자 물줄기가 힘차게 뿜어 나오고 있었다. 어느새 진땀이 났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는데 여자가 드링크 하나를 건네주며 물어왔다.

“날씨 많이 덥죠? 여름도 끝나 가는데 어디 피서는 갔다 왔나요?”

“피서 구경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근처에 해수욕장이 두 군데나 있지만 사람 많은 건 딱 질색이라. 그쪽은 갔다 왔어요?”

“전 이사 온지 얼마 안 돼 길도 잘 몰라요. 이번 여름은 집안에서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무섭기도 하고요. 여름도 다 끝나 가는데 참 한심하죠?”

“한심할 것까지는 없고요. 여름가기 전에 한번 다녀오면 되죠. 근대 어찌다 여기에 이사를 오게 되었죠?”

여자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왔어요. 이런 데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유명한 곳이잖아요. 하지만 그냥 관광하러 한두 번 오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많이 다르네요.”

관광지에 한 번 들르는 것과 그곳에서 주민으로 지내면서 일상을 영위한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여자는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었다. 하긴 따지고 보면 나도 이곳 토박이는 아닌 셈이다. 나뿐만 아닐 것이다.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토박이는 아닐 것이다. 어찌다보니 이곳에 흘러들어와 터전을 잡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눌러앉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아는 얼굴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되고 거리나 건물, 지형이 눈에 익어 막상 다른 곳으로 가면 낯설어서 다시 돌아와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곳, 그게 바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 느끼는 지역 정서일 것이다.

여자가 다시 말했다.

“어디 멀리 가서 바람이라도 한번 쏘고 오고 싶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어떨 땐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금방 바람이 쏘고 싶다고 그랬나요?”

“네. 바람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바람이 쏘고 싶어요. 만사를 제쳐두고.”

여자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시원한 바람 한줄기만 맞아도 울여름 피서 한번 못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 시간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소년의 집 시절이 떠오른 건 나로선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수 십 년 전의 기억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다. 이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자였다. 여자는 내게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도 여자에게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즈음 뭔가에 희망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대신 거의 애무에 가까운 행동으로 나를 품어주었다. 여자의 타액이 묻은 귀를 나는 오랫동안 씻지 않았을 것이다. 혀끝의 뜨거운 감촉과 끈적이는 분비물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였다. 그녀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동안 나는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다. 여자가 먼저 잠들었을 것이다. 여자의 숨결을 코로 음미하며 나는 자신이 처음부터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온 존재라는 걸 어렵듯이 깨달게 되었다. 누군가의 살점과, 피, 영양분을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여자가 떠난 이후에도 한동안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했다. 밤마다 그 여자가 나타나는 꿈만 되풀이해서 꾸었다. 여자가 떠남과 동시에 내 몸에서도 뭔가가 뜯겨져나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여자에게 날 여기서 꺼내달라고, 날 어디론가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걸 두고두고 후회해야 했다.

앞에 있는 여자에게 다시 말했다.

“여기 바람 썰 데 많아요.”

- 4 -

며칠 뒤 여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을숙도로 향했다. 을숙도 공원은 휴일이 어선지 나들이 나온 행락객들로 붐볐다. 운동장, 공연장, 전망대, 에코센터 할 것 없이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농구장과 어린이 놀이터 사이를 지나자 비포장도로가 나왔다. 일웅도라 불리는 곳이다.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여자와 낙동강을 옆구리에 끼고 걷기 시작했다. 강 건너편으로 SK 아파트와 가락 1단지가 보였다. 그 위로는 동아대와 승학 산이 원경으로 잡혀왔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수문 너머로 강변도로를 따라 길게 펼쳐진 염색공단이 보였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동남쪽 하늘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십 수 년 간 내 삶의 터전이기도 했던 곳을 원경으로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동안 가스배달, 식당의 음식배달, 물수건 배달, 마트 배달을 하며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주택, 상가, 시장, 아파트, 오피스텔, 가정집, 사무실, 관공서 등등 안 다녀 본데가 없을 만큼 배달을 다녔다. 이젠 저곳에 있는 모든 골목을 눈을 감고도 훤히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수많은 가정집을 방문했지만 정작 나 스스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진저리를 치기도 했다. 낯선 사람, 낯선 곳을 돌아다니며 문득문득 내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토록 찾고자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정확히 누굴 찾겠다는 건지 알지도 못한 채 나는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다. 여자가 물었다.

“이곳에 자주 오시나보죠?”

“가끔씩 와요. 시간 날 때마다”

“여기 뭐가 있나요?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없다니! 여자의 무심한 한 마디가 좀 실망스러웠다.

“저길 한 번 보세요.”

나는 손가락으로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구조물들로 빼곡한 강 건너보다 수 억년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은 곳, 태곳적 자태를 그대로 간직한 이곳에 오고도 아무 것도 느끼는 게 없다니.

여자와 다시 걸었다. 한참을 걷다보니 드디어 인적이 드문 곳이 나왔다. 주위엔 갈대밭이 우거져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삼각주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강이 끝나는 지점과 바다가 열리는 지점이 겹치는 곳에서 몇 개의 삼각주가 드리워져 있었다. 탐방 유람선이 막 선착장을 떠나는 장면도 보였다. 생각보다 철새는 많이 보이지 않았다. 아주 가끔씩 한 마리씩 수면에 닿을 듯 말듯 날아갈 뿐이었다. 갈대밭 입구에 비치된 안내판에는 분명 수많은 종류의 새들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청둥오리, 흑부리오리해오라기, 청다리도요, 민물가마우치, 재두루미, 황조롱이 등등. 하지만 그녀와 한참을 걸어 도달한 이곳에는 어쩌다 보이는 바지선, 그리고 장마로 인해 흠뻑 젖어 뒤덮인 갈대숲이 비스듬히 드리누워 있었고 한두 마리의 이름 모를 철새들만 외롭게 날아다닐 뿐이었다. 솔직히 나로선 저 멀리 삼각주의 모래사장이나 갈대밭 너머를 선회하는 새들이 청둥오리인지 가마우지인지 도요새인지를 가려낼 자신이 없다. 너무나 원경에서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철새로 보일 뿐이었다.

여자가 불쑥 말했다.

“신문에서 봤는데 저기 철새 중에는 뉴질랜드에서 1만 킬로를 날아와 머무는 새도 있대요.”

“그런가요?”

“7,8일간을 쉬지도 않고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여기서 머물다 간대요. 새들은 왜 그렇게 멀리 떠나는 거죠?”

“글쎄요.”

왜 새들은 7,8일간을 쉬지 않고 수 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걸까, 뭘 찾기 위해서? 혹은 뭘 얻기 위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뭔가가 그리워서겠죠.”

“그리워 서라고요?”

“네. 가끔씩 누군가가 미치도록 그리운데 그 대상이 아주 멀리 있다면 1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수십만 킬로미터라도 날아가야 직성이 풀리지 않겠어요?”

내 말에 여자가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지었다.

철새를 바라보며 나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뉴질랜드 철새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토록 먼 거리를 돌고 돌아 가야하는 운명, 그래서 더 이상 애태우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운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본능, 곁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서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옆에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누군가가 내 곁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싶었다. 그 날 이모라는 여자가 떠나던 날 나는 멍하니 운동장을 가로질러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멍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렸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 그대로 다시 내게 돌아올 거라 믿으며 슬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여자를 애태우는 일 따윈 그만두고 싶다.

여자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서 다시 고양이들과 만났다. 그런데 어미가 보이지 않았다. 새끼 두 마리만 있었다. 새끼들은 그새 몸집이 눈에 띄게 불어나 있었다. 녀석들은 골목의 양편에서 어미가 해 오던 역할을 떠맡고 있었다. 골목에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인가. 녀석들은 아직 내게 경계를 풀지 않는 듯했다. 다가가면 짹짹 건물 틈 사이로 달아나곤 했다. 그도 아니면 몸을 곧추세우며 경계하는 자세를 잡았다가 풀곤 했다. 나는 아직 녀석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 녀석들과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슈퍼에 들러 참치 캔 두 개를 사와 녀석들 앞에 내려놓았다. 녀석들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뿐 참치 캔이 있는 쪽으로 오지 않았다. 거드름을 피우는 건 제 어미를 쫓 빼뺐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다시 지켜보았다. 그제서야 녀석들은 거만하게 어슬렁거리며 걸어왔다. 처음 얼마간 혀로 참치의 겉 표면을 핥다가 아주 천천히 씹어 삼키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참치를 먹으면서도 내게 고맙다는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당연한 자기들의 몫을 챙기고 있다는 듯 여유 있게 먹어치웠다. 나는 녀석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며 사라진 어미는 지금쯤 어디 있을 까하고 한참동안 주위를 둘러보았다.

# 달동네이야기 - 운문 최우수

이 상 록

길을 찾아 떠돌다  
길 끝에 폭포처럼 서는데  
몸뚱어리 내주며 기대라는  
옥녀봉이 따스워라  
뒤따라온 누구든 같은 처지  
고향 달이라도 가까이 보자며  
몸을 낮춰 쌓은 층계가  
견고한 탑을 이룬 것이다  
참 아름다워라  
햇빛의 평등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  
어깨를 토닥여 주려고  
노을이 집집마다 방문한다는  
감천 달동네  
힘줄 같은 골목엔  
풍화를 거역한 무릎이 펼떡이고  
더운 숨이 닿는 벽에는  
소금꽃도 그림 같다는 것이다

# 아버지의 다대포 - 운문 우수

이 효 중

누구의 입김도 닿지 않은  
첫 바다를 베어 물며, 나는  
그리운 얼굴을 떠올렸다.

어스름이 붉어진 해거름을 풀어 헤친  
당신의 시간은 정박하지 않는 배였다.

휴지기 없는 고단한 여정을 바다에  
새기며 긴 포말을 가르는 어선에  
몸을 싣고, 불려지지 않은 배(船)의  
배를 불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다림을 던졌다.

인생에도 이자가 있다던 당신의  
말처럼, 바다에 생을 걸친 평생을  
수심 깊숙이 내려놓고 당신은  
또다시 어느 바다로 떠났다.

기다림이 없는 물길은 일출을 따라  
단정한 입을 닫아 그 안에 잠든  
아무개의 사연을 기술한다.

듣는 사람 하나 없는 자전(自傳)의  
세월이 물길 위에 부서진다.

# 을숙도 울음 - 운문 우수

김 완 수

싱싱한 바람 활이 갈대밭의 줄을 켜  
잠자던 수초들도 귀 쫓긋하는 을숙도  
물 맑은 강섬에 가면 겨울 소리 들린다

새들이 내려앉아 울음을 묻어서일까  
강을 넘겨보던 새가 섬이 되어서일까  
을숙도 이름 부르면 새소리도 들린다

머리맡 꼭짓점은 강어귀로 향해 두고  
강물과 바닷물 섞어 먹을 감는 삼각주  
울음은 뺄는 거라며 젖은 소리 토한다

마른땅도 물들이는 섬의 노을빛 울음  
바람으로 연명하며 목을 놓던 을숙도가  
갯내에 가슴이 멘 듯 잠깐 숨을 고른다

# 감천문화마을 1 - 운문 가작

강 달 수

알록달록 섬 속에  
대구 내장 같은 미로迷路 그려놓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한다.

푸른 지붕마다  
파도를 입주시켜 놓은 마을  
골목을 휘감는 안개 속에서도 비린내가 난다.

초록 담벼락과 노랑 옹벽을 따라  
쇠뿔 물고기들이 이끄는 데로  
헤엄쳐 다니던 사람들

또 다른 섬이 되어  
푸른 스탬프 용지를 들고  
섬 사이를 둥둥 떠다닌다.

# 몰운대 소나무 - 운문 가작

김 미 순

온 몸 나부끼고 비바람 겪으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우리들 가슴에 남아 있는 혼  
오로지 나라 위한 몸짓으로  
금방이라도 뛰쳐나와 호령할 것같은  
조선 수군의 명예를 지킨  
정운 장군  
때로는 돌담 틈새로 먹구름으로 밀려왔다  
몸이 밀려가는 다대포구 모래톱처럼  
창백하게 늘어져 있는 모서리마다 어둠이 살아  
숨 몰아쉬며 맨 먼저 아침을 맞이하였고  
네 안의 바다 다시 한 풍경을 보자  
붉은 몰운대 주름바람은 현기증 일으킨 슬픔  
아파서 웅크리고 내앞에 쓰러진다  
그대는 누구시던가  
아직도 임진왜란 핏빛 그림자 활귀며 날아다니고  
물결치던 그날 땅속에 박혀  
그 통증 오백여년 세월이 흘러 나왔으니  
서녘에 지는 붉은 해보다  
먼저 큰 가슴으로 내려 받았다  
낙동정맥 산빛은 검은 산자락으로 내려앉고  
강선대 거친 치마폭에 싸여 어쩔 줄 몰라할 때  
홀로 떠 있는 불꺼진 눈으로  
조국의 이마를 생각한다

# 모래톱이야기 - 운문 입선

이 우 식

모래톱  
겨울 철새들

밭자욱에 담긴  
먼 나라 이야기

텃새들은  
모래톱에 쓰인  
'ㄱ, ㄴ, ㄷ' 글씨 읽으며

한 번도 못 가 본  
그 먼 나라 계절 한 모퉁이에  
홀쩍 가 있다

모래톱  
여름 철새들

지저킴에 실린  
먼 나라 노랫가락

텃새들은  
모래톱에 숨은  
'도, 레, 미' 화음 찾으며

한 번도 못 가 본  
그 먼 나라 계절 한가운데에  
벌써 가 있다.

# 천년의 흐름-을속도 - 운문 입선

정 동 수

젖은 발목,  
강의 중심을 붙들고 있다

저 두 발에서 시작된 외길

무너지고 쌓이며 흘러가는  
생명의 끝없는 파동

굽이지는 물길은  
제 울음을 굴러 떠나가는데

어느 세월쯤이면 침묵할 수 있을까  
어느 깊이면 침묵하고도 아프지 않을까

굽이진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라면  
우린 어느 굽이를 돌고 있는지

어느 곳에서 풍량이 일며  
어느 곳에서 잔잔한 물살로 흘렀을까  
어느 곳에서 깊어지며  
어느 곳에서 소리내어 흘렀을까

별빛 굽게 징검다리 놓인 날  
저 굽이 돌아나오는 소리  
千年의 소리

# 을숙도 그 섬은 - 운문 입선

박영환

을숙도, 그 섬은  
남사당 미소녀를 기다리는 순이처럼  
다시 찾아온 새들을 맞아  
행복하다  
자리를 비우고 있던 외로운 때도  
가슴 가득 북소리를 안고  
귀향을 믿었고  
그들도 약속을 잊지 않고 손을 흔들며 찾아왔다  
섬은  
여름 내내  
하얀 허벅지에 핏물이 들도록  
삼을 삼고  
물레를 자아 베를 짠  
갈대정원을 내어놓는다  
누구는 또 떠나갈 철새이니  
제 발목 잡아  
상처받아 울기 전에  
너무 깊이 마음 주지 말라고 하지만  
애써  
그들의 집은 여기이고  
여행에서 돌아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부리로 쓰다듬고 나래로 감싸는  
진심을 믿는다

새들이 펼치는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축제 마당은 늘 감동적이다  
비록 또 역마살이 도져 떠난다 해도  
아니 떠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혼을 빼앗는  
저 찬란한 춤사위가 있는 한  
원망하지 않고  
머리를 곱게 땅아 입에 물고  
그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을숙도 그 섬은 지금  
아무 것도 부럽지 않고 황홀하기만 하다.

# 다대포 편지지 - 운문 입선

김 정 임

편지지가 있습니다  
파도가 줄쳐놓은 모래밭 편지지  
오로지 발자국으로만 쓰는 편지지입니다  
삼삼오오 혹은  
외로운 당신이  
바다를 앞에 놓고 사연을 씁니다

모진 사랑에 대하여  
푸슬푸슬,  
한 세상 사는 일에 대하여

그럴 땐 갈매기도 조약돌도 가만히 있습니다

마음 부러놓은 당신들 훌훌 떠나면  
달랑게가 풀게가 줄줄이 나와서는  
오자를 바로잡고 밑줄을 긋습니다

빈 행간은 달빛이 찬찬히 읽어내어  
돌아가는 당신들 야윈 어깨를  
환하게 토닥입니다  
파도는 조용히 사연을 지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편지지를 마련해 둡니다

# 하단포구, 노을의 강론을 듣다 - 산문 최우수

문 경 희

한때의 영화를 되새김질 하듯 포구는 조용히 몸을 뒤척이고 있다. 이웃한 고층의 아파트단지와 빌딩 사이에서 낮은 포복으로 세상을 읽고 있는 자그마한 포구. 어느덧 포구라는 이름마저 무색해지고 있는 하단포구를 찾은 건 퇴근 무렵이었다.

출출한 시간, 허기를 달래며 사무실을 나섰다. 도심 속의 포구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구는 포구가 아닌가. 갓 채취한 해산물이라거나 허름한 선술집처럼, 따뜻하고 정감어린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물녘의 바다라는 쓸쓸함을 깔고 앉아 하루의 마지막을 소진해보는 것도 일탈의 한 방편일 더. 구릿빛 바다사나이들의 걸걸한 농지저리가 귀를 켜는 술집에서 소주 한 잔으로 석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상상은 상상으로 앞질러 나가고, 싸하게 속을 훑는 공복감을 자극하듯 혀 밑으로 느껍게 침이 고인다.

“재첩국 사이소.”

유년의 아침을 깨우던 정정한 목청의 출발지가 이곳 포구 일대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 서울에서 방송관련 일을 하는 딸아이가 사라져 간 옛 것들에 관한 취재를 하러 내려왔는데, 그 중 하나가 하단의 재첩국이였다. 아무리 원조라는 수식어가 범람하는 세태지만 바닷물이 출렁이는 곳에서 재첩국의 원조를 만나겠다니. 처음에는 가우똥 했지만, 그것이 내 무지와 무관심의 소치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단(下端)은 낙동강의 끝이라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태백산의 어느 골짜기에서 발원한 물길이 장장 1300리를 흘러 강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곳인 동시에 바다의 시작점이다. 국내에서 가장 긴 강이며, 낙양의 동쪽을 흐르는 낙동강. 국토의 속살을 조근 조근 밟아 내리며 못생명들의 모천(母川)이 되었을 강이 비로소 안식에 드는 곳이라라까.

밀물과 썰물이 만나던 하단은 한때 재첩 천지였단다. 모래톱에 손을 찻러 넣으면 한 주먹씩 딸려올 정도였다니 가난한 살림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을 게다. 너나없이 먹고 사는 일이 녹록치 않던 시절, 바다가 대가없이 내어주는 것들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총이었으랴. 구수한 밥내가 되고, 등 붙일 방 한 칸이

되고, 자식들의 책가방이 되었던 것이 자잘한 가무락조개, 재첩이었을 것이다.

해감을 시키고, 삶고, 껍질을 제고하고, 다시 끓이고….

도시의 혈관에 수액을 공급하듯, 희뵤한 새벽이면 아낙들의 애절하고도 우렁찬 외침이 골목을 누볐다. 시내는 물론 시외 인근까지, 밭도장을 찍지 않은 곳이 없었을 만치 삶이라는 전장에서 억척을 떨었던 이들이다. 막 끓여낸 재첩국보다 더 뜨겁게 살아냈던 사람들이랄까. 하얀 머릿수건에 치렁한 앞치마, 더러는 등쪽에 매달린 젓먹이까지, 행색은 비록 남루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세상의 하루를 여는 첫 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게다.

산 빛, 강 빛으로 진하게 우려낸 국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아침을 일으켜 세웠을까. 어는 가장의 시린 속을 달래고, 입맛도, 밥맛도, 살맛까지도 희미해져가는 어르신들의 기력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그렇듯 세상은 한 고단함이 또 다른 고단함을 추스르며 흘러왔는지도 모르겠다.

연안 물류의 중심지였다는 하단포구. 부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이곳에 집하되었다가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여 다시 내륙지방으로 운송되었단다. 특히, 강 건너 명지 소금과 전국 각지의 골물이 하단포에서 거래되었다니, 포구의 규모와 명성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그런들 편리와 속도라는 대세를 어찌 거스르랴.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교량이 생겨나고 시원하게 뚫린 강변도로가 뱃길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나루터가 매립되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포구도 쇠락의 길로 들어섰단다. 그들만의 황금어장도 그 즈음에 이르러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포구 초입이다. 푸른 바다에 작은 조각배 하나가 출렁이는 그림의 입간판이 파수병처럼 버티고 서 있다. 원래의 포구가 매립되고 옮겨온 곳이라지만, 황포돛대가 개선장군처럼 포구를 왕래하던 오래전 그때를 복원해 놓은 듯하다. 자그마한 입간판 너머로 오렌지 빛 낙조가 짙어지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도 저 낙조만은 예와 다르지 않으리라.

포구는 적막하리만치 고요하다. 하루를 여닫는 그들만의 규칙이라도 있는 것일까. 자그마한 어선들은 일찌감치 정박의 닻을 내렸고, 배를 부리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다. 어지럽게 놓여있는 부표와 그물, 그리고 자잘한 어구들만이 아직도 명실공한 포구임을 선언하고 있다.

파란 많은 물살을 헤치며 생업에 바빴던 어선들은 내일의 출항을 위해 다시 숨을 모으는 중일 게다. 물질을 끝낸 어부들도 삼삼오오 모여 앉아 텅텅한 막걸

리 몇 잔으로 고단함을 털어내고 있지 않을까. 지금쯤은 그들의 얼굴에도 홍시 빛 노을이 내려앉고 있는지 모른다.

두툼하게 산자락을 두른 구름과 태양의 마지막 숨결이 질펀하게 몸을 쉬는다. 쇠물이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았다가 혼돈의 카오스 같았다가, 그들이 만들어 내는 그림은 시시각각 모양을 달리한다. 살아 움직이는 추상화랄까. 지상의 어느 화공이 태양의 붉은 행보를 저토록 농밀한 터치로 그려낼 수 있을까.

끝나는 순간까지는 끝이 아니라며, 태양은 남은 오늘을 치열하게 채워간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뒷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태양의 전언이 허공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아직도 남아 포구를 지켜내는 이들을 향한 주문처럼, 혼신으로 제 몸을 달군다. 저토록 뜨거운 노을의 강론에 누군들 눈 감고 귀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도심의 뒤편길에서나마, 포구도 포구의 사람들도 분명 오늘을 저리 장엄하게 살아냈을 것이다.

민생고도, 한 잔 술도 뒷전으로 물린 채, 숨 막히게 펼쳐지는 장관에 오감을 맡기고 섰다. 밤새 불 앞을 서성였을 아낙들처럼, 산 너머 어디쯤에서는 태양의 두 손도 밤을 밝히며 새로운 하루를 빚어낼 것이다.

노을이 밀어 올려줄 내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강가에 앉아 - 산문 우수

정 미 선

오늘은 강물이 황토빛이다. 상류 지방에 집중호우가 말없이 물빛을 바꿔놓았다. 나는 강가에 앉아 바다와 조우하는 강물의 설렘을 지켜보고 있다. 바다와 만나는 강이 하도 커서 강인지 바다인지도 얼핏 구분 되지 않는다. 자리만 바뀌 으면 바다요, 앉은 자리에서 방향만 틀면 강인 이곳 하단은 강물이 깊게 흘러서 도무지 그 속을 짐작하기 어렵다.

유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 고향마을은 아직 강이 되지 못해서 그럴 듯한 이름조차 없는 하천이 있다. 이름이야 있겠지만 그것은 물길이 제법 잡히는 곳에서나 볼릴 것이고 우리 마을의 도랑은 그 이름의 상류의 상류라서 지도에 나와 있는 번듯한 이름으로조차 불리지 못하는 곳이다. 계곡물을 모으고 강으로 가고자 하는 그 상류의 하천으로 ‘큰도랑’ 이라고 부르며 자랐다.

여름이면 으레 몇 번씩 큰물이 지곤 했는데 그럴 때면 하나둘 강둑에 모여 물구경을 했다. 윗마을, 그 윗마을에서 떠내려 오는 호박이며 오이를 건져 공인듯 차고 놀았고, 강둑에 서서 두려운 눈으로 살아있는 무엇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아주 가끔이지만 허우적거리는 돼지도 떠내려 오고, 닭은 죽어서 흰 종잇조각처럼 물살을 타고 멀어졌다.

또 갖은 가제도구들이 뚱뚱 떠내려가기도 했다. 서랍장은 서랍을 잃고 몸체만 허전하게 떠갔고, 커다란 함지박은 뒤집힌 채로 물살에 출렁거렸다. 누군가의 집에서 제 뭇을 툭툭히 하고 있었을 손 때 물은 살림살이들. 옛그제까지도 요긴한 손길을 받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휩쓸려 멀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오순도순한 정이 떠내려가 수장되고 익사 당했다. 큰물이 지면 허술한 집에서는 추억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어린 우리는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지만 물의 거대한 힘에 늘 압도당했다. 독에서 어른들이 슬렁대면 아이들까지 두려운 표정이 된다. 윗마을에 사는 누군가 눈에 물꼬를 트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거나 밭을 헛디터 물살에 휩쓸려 가서

그를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면 불어난 냇물은 더욱 무섭게 보였다. 물살도 거 세계 느껴져 더 이상 애호박을 건져볼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 두려웠던 냇물도 비가 그치고 이삼일만 지나면 먹을 감을 수 있게 순해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 물장구를 치며 한나절 더위를 식히게 하는 고마운 변신. 큰도량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놀 거리를 제공했다. 고동을 잡기도 하고, 버들강아지를 꺾기도 하고, 독에 모여 소쿠리가 가득하도록 쑥이며 나물을 캐기도 하고, 겨울엔 스케이트장으로 변해 엉덩방아를 찧게 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내川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 마을을 떠난 지도 오래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물가에 산다. 이 거대한 도시를 감싸고도는 낙동강은 늘 말이 없다. 출렁거림도 적고, 큰물이 지거나 가물어도 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만조기와 간조기에 맞춰 은근히 올랐다가 또 슬며시 수위를 낮출 뿐이다. 어릴 적 그 변화무쌍한 냇물과 너무도 대조적인 낙동강.

새벽이면 고요히 해무를 품고 있는 강을 만날 수 있다. 솜털을 적시는 축축한 안개 속에 앉아 귀 기울이면 끼룩거리는 새들의 울음소리만 간간이 들린다. 안개 자욱한 갈대숲에서 새들은 눈꺼풀을 밀어 올리며 강을 수수수 깨운다. 거대한 강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듯 한데 도무지 요란스럽지 않다. 강은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믿음직한 큰 형님처럼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묵직하고 든든하게 모든 것을 품고 있다.

간밤에 기록을 깨는 큰 비가 내렸는데도 표정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큰 강은 말수가 적다. 어릴 적 큰도량은 비가 오면 빗소리보다 더 큰 울림으로 마을 사람들을 독에 모이게 했다. 냇물은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웅웅거림으로 큰물이 졌다는 것을 알리며 거센 물살을 일으켰다. 그 끝에 거대한 집하장이 있는 것인가. 주변의 것들을 끌어 모으며 버럭버럭 화를 내며 출렁거렸다.

큰도량에 비하면 지금의 이 강은 참으로 젊잖다. 석양이 걸릴 때 강가에 앉으면 가슴에 그리움이 가득 찬다. 딱히 누구를 향한 그리움이거나 어디를 향한 그리움인가를 규정지을 수 없는 막연한 감정에 휩싸인다. 그럴 때면 누구에게라도 눈인사를 건네고 싶고, 행운을 빌어주고 싶어진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하늘은 먼 산을 경계로 노을이라는 이름으로 강물 위에 선홍빛 채색을 해 놓는다.

아, 황홀한 데칼코마니!

내 가슴은 온통 선홍색으로 물들어 헤어 나올 수 없는 신비한 비경에 실눈을 뜬다. 붉은 기운은 하늘 가득 비단 천으로 펼쳐지고 새들의 비상이 그 천을 가르다. 하늘도 강도 온통 붉은 빛이 가득하고 나는 기막힌 노을빛에 그만 풍덩 빠지고 만다. 노을이 지면 그 노을 속에서 오래 된 이름이 걸어 나올 것 같다.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서운한 얼굴이 떠올라 조그마한 목소리로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와 금세 화해되어 예전처럼 노을을 등지고 물장구를 치며 놀고 싶어진다. 큰도랑에서 먹을 감던 그 때로 돌아가 저녁 내음이 나는 것도 모르고 독에 앉아 옷을 말리며 나란히 석양을 보고 싶다. 붉게 물든 옷에서는 노을 물이 똑똑 떨어지겠지. 오늘의 저 큰 강은 내가 실눈을 뜨며 유년의 큰도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 물의 흐름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보여주지 않고 담담하다.

가끔은 존재의 무상함이 몰려온다. 일상의 반복은 헛된 몸짓일 뿐이고, 순수함의 결정체라고 믿었던 것의 배신. 삶은 허무해서 너무도 허무해서 어떤 것에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초차 구분해 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능동적인 것과 그저 등등 떠가는 수동적인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구분해 내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 모든 혼란을 안고 가만히 강을 본다. 한동안 현기증에 몸을 맡기고 강과 호흡을 맞추다보면 눈 앞에서 모든 사물들이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다가, 내 자신도 온갖 것들과 함께 등등 떠다니며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가 마침내 강물처럼 고요히 침묵하게 된다. 내 안에 내가 묵직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온다. 그래서 나의 모든 혼란도 가라앉고, 흙물처럼 가라앉아 혼란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게 된다. 허무한 삶에 허무한 강. 그래서 허무는 허무로 치유된다.

어릴 적 큰도랑은 성장의 도랑이었다. 이야기의 도랑이고 놀이의 도랑이다. 그래서 큰도랑은 친구였고 놀이터였다. 그리고 큰물이 질 때면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며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도랑이었다. 내가 돌아가고픈 어머니

품 같은 곳이다. 유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동화집의 하천이다.  
나는 강가에 앉아 있다. 유년의 큰도랑이 흐르고 흘러 이렇게 대견하게 컸는가.  
내가 깎이고 굴절 될 때마다 성장을 멈추고 주저앉았던 그 많은 시간동안 강은  
이토록 훌륭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닦아 왔는가. 이제 나는 나이 먹은 채 혼탁한  
영혼을 끌고 강가에 닿았다. 세월이 앓은 나는 향기로운 어른이 되지 못하고 미  
발육의 이유마저 교묘히 전가시킬 무엇을,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며 강가에 앉았  
는데 강은 잿푸른 빛으로 그윽하게 나를 다독인다. 어린 날의 맑은 목소리가 스  
민 강은 이제 해탈하여 포근하게 나를 감싼다. 잘 놀아준 친구였던 그가 이젠  
치유를 자청하고 있다. 묵언의 성자가 된 강은 내 푸념을 다 들어주며 위로한  
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고 따스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 까치발을 내려놓고 - 산문 우수

정 문 숙

십년 만에 찾아온 곳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데도 떠난 곳을 다시 찾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바쁘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오래된 생채기를 되새김질하기 싫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어젯밤 지영이와의 통화가 불쑥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지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의 하나였다. 성적이 상위권인데다 영어선생님을 하겠다는 당찬 꿈이 예뻐서 애정을 갖고 지켜봤던 아이였다. 수시로 우리 집을 드나들며 고민을 털어놓고, 기쁜 일도 나에게 먼저 알리곤 했었다. 지영이가 고1이었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외할머니 집으로 간 후 우리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지영이. 그 아이는 오래전 그때처럼 나에게 상담을 해왔다. 교직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데 지금 형편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 말끝에 나에게 수업을 받을 때가 그림고, 그때처럼 산길을 같이 걷고 싶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도 한 동안은 그때 그 시절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

아미동을 지나 사하구가 시작되는 곳, 까치고개. 이곳에서 학원을 운영했다. 원생들은 대부분 집 근처 초중고생들이었다.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 방학 때는 가능하면 오전에 수업을 끝내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곳 산을 오르곤 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꿈도 함께 그렸던 곳이었다. 정든 옛 터를 앞두고 보니 그때가 어제인 듯 선명하다.

구두를 벗어 차에 두고 운동화를 꺼내어 신는다. 발이 편해지자 온몸이 편안해진다. 산도, 집들도 한 무릎 다가오는 것 같다. 추억도 한층 생생해진다. 간단한 여유를 즐기며 천천히 걸음을 떼어 놓는다.

아파트 뒤로 돌아가 탱자나무 울타리가 쳐진 담장을 따라 걷는다. 성냥 꺾처럼 작아서 마치 동화 속의 요정들이 살고 있지 않나 싶던 집들이 나온다. 이 길을 곧장 따라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사방이 탁 트이고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일까. 자주 그곳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곤 했다.

“깍깍깍, 깍깍깍”

어디선가 들려오는 까치소리가 정답다. 모든 게 변했지만 까치 소리는 여전하다. 이곳은 내 청춘의 한 시절을 내려놓았던 곳이다. 제2의 고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타지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데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듣는 익숙한 까치소리가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아 팬스레 울컥해진다.

“ 짹짹, 쪽쪽쪽 ”

까치소리를 말로 표현 하라했더니 지영이가 알려준 것이다. 우리를 반기는 박수소리, 우리를 격려해주는 뽀뽀소리 라며 까르르 웃곤 했다. 까치는 사람과 친숙한 새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곳에는 유난히 까치가 많았다. 까치들의 합창에 아침 일찍 눈을 뜨곤 했으니까.

산길로 접어드니 까치 몇 마리가 눈에 띈다. 가느다란 발가락에 힘을 주고 뒤꿈치를 들고 쿵쿵거리며 걷는다. 벌레를 잡는지 부리로 콕콕대며 땅을 쪼고 있다. 오고 가는 등산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익숙해서인지, 인기척을 못 느끼는 것인지 일부러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풀밭을 걸어도 저희들끼리 수다삼매경에 빠져있다. 마치 작은 교실에 앉아 재재거리던 아이들처럼 정다운 한때를 즐기고 있다.

새처럼 재잘거리던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 가끔 안부를 물어 오기도 한다. 경찰이 된 아이도 있고, 군인의 길을 가고 있는 아이, 간호사가 된 아이도 있다. 학창시절을 나와 함께 걸었던 아이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시간의 위력이라는 걸까.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크게 남아 있는 곳이지만 돌아보면 그마저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 있다. 쫓기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던 곳. 그런데도 신접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또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곳에서의 추억이 때때로 그리웠다. 그 시간 속에 나의 청춘도 있고, 안쓰러운 뒷모습을 남기고 떠나간 지영이도 있다. 몇 달 전 우연히 지영이와 연락이 닿았다. 약속을 하고 커피점에서 만난 지영이는 사내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대학교 1학년 때 동급생인 남편을 만나 아이를 기르며 일을 병행하면서 어렵사리 학업을 마쳤다고 했다. 아직은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며 희희낙락해도 좋을 나이건만 직장 생활에 육아까지 감당하느라 지쳐보였다.

얼마나 종종걸음으로 달려왔던 것일까.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말갭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어 그리

바쁘지 차 한 잔을 다 마시지도 못한 채 뛰다시피 되돌아서던 지영이는 아이를 맡기고 바빠 출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환한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이 보이는 것 같아 헤어지고 난 후에도 한동안 짠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지영이의 지금 모습이 내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지영이가 외할머니 집으로 갈 무렵 나 역시 혼란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이 중국을 거래 선으로 하는 무역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선배의 말만 듣고 전 재산을 들고 덤석 뛰어들었다. 그러나 들여온 물건은 하자 투성이였다. 결국 환불 요청이 쇄도했고, 그 비용까지 더해서 빛이 없어진 꼴이 되었다. 투자하면 배로 돌려주겠다고 돈마저 떼이고, 남편의 꿈을 부추기던 나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했던 죄과는 혹독했다.

늘어나는 빛이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 달리 방도가 없었다. 수강생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업직에 뛰어들었다. 그 후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나를 추스르기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때때로 지영이를 비롯한 아이들의 눈망울이 떠올랐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마저 끊고 살았다. 그때의 습성이 몸에 뻐는지, 지금도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끼니도 거른 채, 휴일도 없이 일할 때가 많다.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걷다보니 어느새 정상이다. 옥녀봉을 샅샅이 훑던 붉은 해가 저 멀리 다대포 바다로 누엣누엣 기운다. 외국의 어느 마을처럼 이색적인 정취의 감천마을이 보이고, 컨테이너를 싣고 트레일러가 오고 가는 감천항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보이는 장림과 다대포가 절부채처럼 펼쳐져 있고, 부챗살처럼 쪽쪽 뻗은 도로에는 차들이 한낮의 열기를 식히며 느릿느릿 달린다. 해는 구름과 어깨동무를 하고 바다를 품에 안으며 살며시 모래톱에 내려앉는다. 뜨거운 열기를 풀어놓고 잔 숨을 토해내는 저 태양처럼 이 순간 나도 잠시 익숙하던 까치발을 내려놓고 있는 참이다. 푸근해진 마음속에 풍경도 담고, 사람도 담고, 하루의 끝을 알리는 태양도 담는다. 오랜 허기를 채운 듯, 살 것 같다.

다음에 지영이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다. 힘들면 가끔은 까치발을 내려놓으라고.

# 문화마을의 아침 - 산문 가작

장 윤 선

나는 한참 동안이나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다. 밖의 습한 기운 때문에 문고리를 잡고 있는 손이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고개를 조금 들자 제 이름에 꼭 맞는 연한 하늘색으로 칠이 된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천마산도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연녹색을 띠고 있었다. 잔뜩 찌푸린 날씨가 사물들이 뿜어내는 선명한 빛을 다 가려버렸다. 내 뺨에 습기가 느껴졌다. 비가 내리려나 싶었다. 뒤를 돌아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작은 칼을 들고 오늘 밤에 있는 제사에 쓰일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다. 엄마는 마치 처음 칼을 잡은 유치원생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시금치를 다루고 있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을 앓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 바닥에 깔린 신문지에 반쯤 가려져있는 엄마의 발목은 내 팔목과 견주어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늘어져 있었다. 그래도 십 년 전에 심한 합병증으로 잘려나갈 뻔했던 발목이 제 자리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요즘은 모든 게 다 새삼스러웠다. “엄마, 종이에 적어준 것들만 사오면 되는 거가?”

나는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잘 들어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래, 다른 것들은 다 집에 있다. 초랑 향만 한 통씩 사가지고 온다. 근데, 우산은 안가지고 가나?”

“잠시면 되는데 뭐. 금방 갔다가 올게.”

엄마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내 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지 모른다. 눈물이 나올지, 아니면 언성이 높아질지.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집의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골목길은 워낙 좁아 집을 나설 때마다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되는 통로처럼 느껴졌다. 골목과 골목. 연이어 나타나는 낮은 계단들. 그 사이 사이를 가르고 자리를 잡은 많은 집들.

감천으로 처음 이사를 왔던 날이 생각났다. 아홉 살의 나는 덩그러니 골목의 가운데에 서 있었다. 부모님은 이삿짐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에게 작은 사탕을 쥐어주고는 눈앞에서 계속 사라졌다. 나는 부모님이 사라질 때마다

골목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잃고 울고 있던 내게 손을 내밀던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오빠. 나보다 네 살이 많은 오빠는 부모님을 대신해 나를 살뜰히도 챙겼다.

이런 저런 기억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때쯤 다행히 골목의 끝이 보였다.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였다. 하교하는 아이들과 저녁거리를 준비하러 나온 주부들로 주변은 시끌시끌했다. 시계를 보니 오후 다섯 시가 다 되어 있었다.

‘좀 일찍 나올 걸 그랬나?’

사실 요즈음의 감천은 늘 이렇게 묘한 활기가 돌았다. 문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널리 알려진 이후부터였다. 수십 년간 변화가 없었던 동네에는 다른 지방의 사투리와 외국말들이 흔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낮선 억양과 낮선 공기가 이곳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다. 다양한 음식점들의 기름냄새가 1년 내도록 명절 기분을 느끼게 해 주었다. 무뚝뚝하던 가게의 주인들도 달라진 분위기에 걸맞게 표정들이 밝아졌다. 모두들 장사치 같지 않은 태도와 말씨로 손님들을 반겼고 곳곳에서 마을 안내원 역할을 했다.

나도 마을의 초입부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문화마을의 입구부터 낮선 관광객들과 섞이다 보니 새로운 눈으로 거리를 보게 되었다. 온통 회색으로 칠해져 있던 벽은 미술관의 한 구획처럼 꾸며져 있었다. 그중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시되어있는 새 조각상은 내 발을 한참이나 붙들어 놓았다. 사람의 머리를 한 채 날개를 달고 있는 여러 마리의 새들은 당장이라도 날아올라 저기 먼 바다를 건널 것 같았다.

방향을 조금 틀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니 내가 알던 감천이 다시 나타났다. 골목의 집들은 워낙 좁은 간격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 이웃집의 TV소리와 웃음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그 소리를 덮는 관광객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왔다. 고래를 돌려 내가 지나온 작은 카페를 바라보았다. 두 명은 차를 마시고 있었고 몇몇은 가게에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 물건들은 모두 감천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잡화와 장신구들이었다. 그 곳에서 연신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대는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골목을 빠져 나오니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빠져 나온 골목의 맞은편에 있는 하늘마루 전망대와 감내카페는 이미 문을 닫은 후였다.

“식쓰 어클락. 클로즈. 카페 클로즈.”

동네 할아버지의 어설픈 영어와 그 영어를 알아듣고는 실망하는 중국인 소녀들이 보였다. 가게의 주인들도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도 마트에 들러 물건을 사고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니 여선이 아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의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기억 안 나나? 너네 엄마 교회 친구잖아. 니 시집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저 엄마가 사위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낮이 익은 얼굴의 아줌마였다. 굵은 웨이브가 들어간 짧은 단발머리에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자.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깔끔한 베이지색의 원피스가 잘 어울렸다.

“아, 안녕하세요.”

“그래. 내야 잘 지내지. 근데 니 살은 와 이리 많이 빠졌노? 결혼해서 사니까 살림 산다고 힘드나? 얼굴이 반쪽이네.”

“네, 그냥 뭐.”

“친정에 엄마 보러 왔는가 보네. 자주 자주 와라.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넋을 놓고 한참을 서 있어야만 했다. 결혼해서 사니까 살림 산다고 힘드나? 얼굴이 반쪽이네. 아줌마와 그 소리가 한참동안이나 가슴을 어지럽게 하였다. 집에서 나올 때와는 다르게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다고 얼굴에 기분을 다 드러낼 수는 없었다. 아줌마의 말과 지금의 내 상황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엄마, 다 사 가지고 왔다. 음식은 이제 다 됐나?”

문을 열고 크게 소리쳤다.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엄마는 냄비에 담겨진 국을 휘젓고 있었다. 이미 다른 음식들은 모두 그릇에 담겨져 식탁에 놓여 있었다.

“그래, 수고했다. 맛 한번 봐라. 요새는 입이 써서 그런지 간도 잘 못 보겠네.”

“다 맛있겠지. 그런데 오빠는 아직도 안 왔나?”

“곧 오겠지. 바쁜데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어디 쉽나?”

엄마는 단아놓은 냄비를 열어 쓸데없이 다시 저었다. 담담하게 아들에 대한 비난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바쁠 것도 없는 실업자가 늦기는 왜 늦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러면서도 항상 오빠를 감싸고만 드는 엄마를 보

면 울화가 치밀었다.

“엄마는 오빠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아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또 엄마한테 카페니 뭐니 차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가? 그렇게 뜯어가 놓고서도 말이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작된 오빠의 카페타령은 결국 엄마를 이기고야 말았다. 감천에 제대로 된 테이크 아웃 커피점을 내겠다는 오빠의 말을 다시 한번 믿어준 것이다.

“시끄럽다. 너는 뭐 안 가지고 갔나? 그런 소리 할 거 같으면 너는 가게 개업할 때 손 떼라.”

“내가 가져간 돈은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이다. 내 돈. 내가 이 집에 벌어서 보텐게 얼마데. 그 돈들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갔노? 그런데도 엄마는 맨날 오빠 편이가?”

고등학교 졸업이후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들이 생각났다. 몸이 약한 엄마와 예민한 아빠를 위해 자질구레한 오빠의 용돈과 술값은 모두 내가 맡았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나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싫었으면 시집가서 잘 살지 왜 이혼하고 도로 왔노? 내가 동네 창피해서 죽겠다.”

“그래서 엄마 친구들한테 있지도 않은 사위자랑 하면서 거짓말 하는 거가? 그러면 덜 창피하나?”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버렸다. 카페 개업을 준비하면서 희망이라는 예쁜 상자 속에 꺾꺾 눌러 담아 두었던 감정들이 흘러 나온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는 서로 터져 버릴 것 같아 집을 나와 버렸다. 급하게 뛰어 올라간 곳은 집의 옥상이었다. 내가 갑갑할 때 마다 찾은 옥상은 오늘도 그대로였다. 아직 건지 않은 빨래들 사이로 화사하고 밝은 색깔의 지붕들이 보였다. 카메라의 셔터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 감천의 새로운 소리라면 노랑, 보라, 주황, 민트그림이 뒤섞인 사랑스러운 무지개색이 감천의 새로운 상징색이 되었다. 그 색들이 익숙하던 옥상의 풍경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 새로운 낮설음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변하지 않은 풍경 속에서도 새로운 빛깔의 희망이 싹트는 것 같았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5월이지만 아직은 저녁의 날씨가 꽤나 쌀쌀하기에 팔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급하게 빨래를 걸어서 아래로 내려갔다. 문을

닫고 빨래를 거실에 내려놓으니 바깥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닥과 창틀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규칙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다. 조용히 빗소리를 들으며 내일로 예정된 개업식을 생각했다. 기본적인 준비와 인테리어는 모두 끝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비가 오니 페인트칠이 된 가게 외벽이 걱정되어 나가 보기로 했다.

개업식을 앞둔 우리 가게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의 낡은 주택의 1층에 있었다. 작은 구멍가게로 사용되어지던 가게는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다. 색이 변해버린 주택의 1층에 자리를 잡은 카페는 혼자 선명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카페의 앞면은 노란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출입문과 창문은 하얀색의 페인트로 덧칠이 되어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산의 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냥 창가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테이블은 네 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밝은 톤의 원목을 사용해 따뜻한 서재 같은 느낌이 들었다. 냉장고며 커피를 뽑는 기계며 일회용 제품들에 새겨져 있는 도안까지 모두 다 내 손을 거쳤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싸게 파는 커피라고 해도 싸구려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여러 모로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창틀에 맺힌 물방울을 손으로 닦아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빠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엄마는 오빠에게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제사음식을 준비하느라 진이 빠졌을 법도 한데 지치지도 않는지 3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해댔다.

“엄마, 전화 그만 해라. 내가 다 지친다.”

“혹시 사고가 난 거는 아니겠지? 비가 오니까 영 불안하네.”

별걱정을 다 한다며 한 소리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진심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을 쳐다보는 눈에는 바짝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한참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숨을 쉬기도 버거운지 약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 작년 이날도 엄마는 이렇게 아빠를 기다렸을 것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아빠는 퇴근 후에 곧장 집으로 오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빠를 기다리는 게 엄마의 일중 하나였다.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도 엄마는 아빠를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아빠의 죽음을 알렸다. 그때 엄마는 혼자였다.

“진육이 차에서 나는 소리 아니가?”

엄마가 반색을 했다. 나는 귀를 기울였지만 무심히 고막을 적시는 빗소리뿐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여기서 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노? 주차시키는 데서 골목 안에 있는 집까지 거리가 꽤 먼데.”

“안 들리기는 왜 안 들리노? 내가 눈이 갔지 귀까지 갔을까 봐서?”

엄마의 예민한 반응에 나 또한 현관문을 쳐다보게 되었다.

잠시 뒤 비밀번호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난 후 뜻밖에도 오빠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빠,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고? 12시가 다 됐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TV리모컨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왔으니 됐다. 아빠 배고프시겠다. 퍼떡 지내자. 그래도 아버지 제사라고 양복도 입고 오고. 됐다.”

나 또한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이런 일로 화를 내봤자 내 입만 아프다는 걸 수십 수백 번은 경험했었다.

‘그래. 그만 두자. 엄마 말대로 양복 입고 온 게 어디야.’

나도 구겨진 원피스 치맛자락을 손으로 펴고 엄마가 담아 놓은 음식을 안방에 차려진 제사상으로 옮겼다.

창 밖의 어둠이 집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간간이 들리던 고양이 소리도 멈춘 지 오래였다. 빗소리만이 우리 가족과 함께였다.

나는 영정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아빠는 녹색 티셔츠에 주머니가 달린 빨간 낚시용 조끼를 입은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머리에는 베이지색의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내가 이거를 쓰고 어디를 가라고 사왔노?”

모자를 받아 들고는 아빠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이 뺨의 중간까지 이어져 있었다.

“등산이든 낚시든 엄마랑 같이 이제 놀러도 좀 다니고 하세요. 삼십 년 회사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 그럴 자격 충분히 되시니까 이제 좀 그러고 다니세요.”

고작 모자 하나를 사다 드리면서 참 많은 생색을 냈었다. 그전까지 아빠에게 모자란 작업장에서 쓰던 안전모가 유일한 것이었다. 긴 세월 동안 아내와 자식을 위해 일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딱딱한 안전모를 벗고 부드러운 모자를 쓴 것

이다.

“그래, 이제 나도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든 빌라든 하나 사서 월세나 조금씩 받고 살란다. 너네도 이제 다 컸고 생활비도 얼마 안 드니까 너 거 엄마랑 들어서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지 뭐.”

오랜 시간의 노동에서 해방된 기쁨에서였는지 그날 밤 아빠는 참 많이도 웃었다. 하지만 내가 사드린 부드러운 베이지색 모자는 단 한 번밖에 바깥바람을 쐬지 못했다. 아빠는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한 산행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모자를 썼고 그 모습은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남게 되었다. 아빠의 퇴직금은 갈기갈기 찢개어져 날아갔고 아버지는 다시 노동판에 나서야 했다. 집안에 처음으로 들어온 목돈을 오빠가 알게 된 게 문제였다.

“아버지, 그 돈 진짜 그냥 썩힐 겁니까?”

“썩히긴 뭘 썩혀? 그냥 작은 빌라라도 사서 엄마랑 먹고 살면 되지. 너거도 이제 다 컸고.”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한번만 좀 도와주세요.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에 조금만요. 네?”

집요하게 아빠를 물고 늘어진 오빠는 결국 원하던 돈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도 오빠가 돈을 모두 써버릴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 부모님에게 떼를 썼다. 그 돈으로 나는 결혼을 했다. 오빠의 사업자금과 나의 결혼자금이 아니었다면 아빠는 본인이 원했던 대로 작은 빌라를 한 채 얻어 월세나 받고 남은 인생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험하고 낮은 작업장으로는 가지 않았을 테고 지친 퇴근길에 비명횡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빠는 세상을 떠났지만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산다고 했던가. 우리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 했다. 마침 문화마을에 작은 가게 자리가 나서 카페를 차리기로 했다. 나는 오늘 오빠를 만난 김에 카페의 인테리어 마감 문제와 개업식 문제를 함께 의논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이런저런 문제와 감정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치고 다시 오빠가 신경을 긁어댔다.

“야, 너는 이제 얼굴이 좋아졌다. 처음 이혼하고 왔을 때는 한 번에 봐도 딱 이혼한 여자라고 알겠더니.”

“너는 와 또 동생한테 시비고? 니랑 같이 해야 되는 개업 준비도 지 혼자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엄마는 사과를 꺾고 있던 차였다. 꺾던 사과를 들고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말로는 오빠에게 화를 내는 듯 했지만 눈빛으로는 내게 참으라고 말했다. 그 모습에 나는 심기가 더 틀어졌다.

“오빠, 술잔 내려놓고 이제 얘기 좀 하자. 내일이 당장 개업일인데 오빠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고? 오빠가 인테리어 쪽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었더니 마감이 대체 언제 되노? 내일 제대로 손님도 못 받겠다.” 제사 음식을 안주 삼아 이미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신 오빠는 특유의 느긋하고 실실대는 말투로 맞받아 쳤다.

“내일 영업시작을 어떻게 하겠노? 인테리어하시는 그 형님이 원래 바쁜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내일은 그냥 떡이나 돌리고 시험 삼아 커피나 조금 뽑아서 동네 사람들한테나 돌려라. 그래야 앞으로도 장사에 도움이 되지. 니처럼 그렇게 악다구니 쓰면 오던 손님도 안 온다.”

나는 숨이 차고 온 몸이 뻗뻗해졌다. 손이 떨려 들고 있던 포크도 내려놓았다. 그동안 혼자 카페 개업에 매달리면서도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참았다. 그 모든게 모욕당한 것 같았다.

“커피가 무슨 공짜 약수터 물인 줄 아나? 그것도 다 돈이다. 돈. 그 따위로 돈을 우습게 알고 장사를 하니까 하는 족족 다 말아먹었지. 그리고 그 아는 형님인가 뭔가 하는 인간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난 줄 아나? 싸게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시간을 얼마나 질질 끄는지. 다른 업자한테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겠다.”

“니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한 번 이혼하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말아먹어? 그러면 니는 니 인생 왜 말아먹었노? 잘 살지.”

우리는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찢어댔다. 이런 와중에도 엄마는 나에게만 참으라며 아까부터 내 허벅지를 붙잡고 흔들며 대고 있었다.

“니 남편이라는 인간은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이혼하고 나서도 장모한테 사과 전화 한 번을 안 하고, 참 대단한 인간이랑 살다 왔다.”

“그 사람 얘기는 왜 하는데? 오빠는 아들인데도 초상 첫날에 연락이 안 돼서 그 다음날에야 왔잖아. 누구는 할 말이 없는 줄 아나? 아빠가 누구 때문에 퇴직금 다 날리고 다시 일하러 가셨는데. 오빠만 아니었으면 아빠도 안 죽었다.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왜 항상 오빠 편만 드는데? 그때도 아빠는 주지 말라고 한 거를 엄마가 몰래 은행에서 찾아다가 줬잖아. 엄마도 공범이다. 공범.” 목을 찢으며 새어 나온 말들이 방안을 뒤덮었다. 술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

갔다. 그 힘을 못 이긴 술잔이 미끄러져 상위에 쓰러졌다. 바닥을 짚고 있던 다른 한 손에 힘을 주고 일어서려 했지만 이내 다리의 힘이 풀려 버렸다. 오빠는 당장에라도 한 대 칠 듯이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고 엄마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지 한쪽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쌓여있던 말들을 쏟아내고 말했다. 아빠에 대한 죄책감을 엄마와 오빠에게 덧씌운 것이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았다.

갑자기 뺨이 불에 덴 듯 뜨거워졌다. 눈앞에 있는 오빠의 얼굴이 아득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상을 마주하고 서 있는 오빠와 오빠를 붙들고 있는 엄마가 보였다.

‘저 손으로 나를 쳤구나.’

엄마가 잡고 있는 오빠의 손이 보였다. 힘들 때 내 손을 잡아 주던 오빠는 이제 없었다. 그 생각이 들자 나를 막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버린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빠에게 덤벼들었다. 놓여있던 술상은 엎어졌고 술병과 그릇들이 사방으로 나뿔굴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니가 뭔데? 니가 뭘 잘 했다고 나를 때리노? 아빠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오빠는 미안하지도 않나?”

“돈은 나만 가지고 갔나? 돈 뜯어서 시집간 건 기억이 안 나나?”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다.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리는 오빠에게 엄마가 달려들었다.

“제발 그만 해라. 제발”

거의 매달리다시피 오빠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사정했다.

“둘 다 그만 해라. 아버지 보시는데 뭐하는 짓이고?”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우리 둘을 겨우 진정시켰다.

“진옥아, 여선아. 너네 둘 다 잘 들어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는 아나? 카페인지 찻집인지 차린다고 들고 간 그 돈말이다.”

엄마의 물음에 우리는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못 했다. 그동안 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막연하게 아빠의 남은 퇴직금과 엄마의 쌈짓돈이 합쳐진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 돈이 뭘 줄 아나? 너네 아버지 목숨 값이다. 마지막 목숨 값.”

엄마의 말에 순간 멈칫했다. 아빠의 목숨 값. 아빠는 돈이 든다며 변변한 보

힘도 하나 들지 않았고 일용직이라 회사에 호소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무슨 목숨 값이란 말인가.

“엄마. 무슨 말인데?”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오빠가 물었다.

“너저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명이 법무사잖아. 장례식 때 와서는 본인이 더 기가 차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연달아서 야근했던 거랑 퇴근길에 쓰러진 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 받아준다고 하더니 진짜 몇 천만원 받아왔더라. 그 돈이 다 거기서 나온 거다. 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돈이다. 그 돈이 다 아버지 목숨하고 바꾼 거다.”

아빠의 목숨 값. 아빠의 합의금을 손에 쥐고 혼자 울었을 엄마가 그려졌다.

갑자기 오빠는 바닥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집어 들었다.

“진옥아. 니 어디가노?”

오빠는 엄마를 뿌리치고 집을 나갔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집이 조용해지자 남아있던 엄마와 나는 각자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였다. 제사 음식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고 방과 주방을 정리하고 나니 새벽 세 시가 넘어 있었다.

“엄마. 들어가서 조금 쉬라. 음식 준비에 정리에 너무 무리했다.”

“밖에 비가 좀 잦아드는 것 같네. 너저 오빠는 대체 어디를 간 거고?”

엄마는 식탁에 의지한 채 현관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충혈된 눈과 창백한 얼굴 때문에 곧 쓰러질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억지로 엄마를 안방으로 들여보냈다. 엄마도 쏟아지는 잠은 이길 수 없었는지 곧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규칙적인 엄마의 숨소리에 나도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 집 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도 잠잠해진 지 오래였다. 한바탕 소동이 있었나 싶게 집은 고요했다. 나는 혼자 거실에서 있었다. 거실의 불을 끄고 내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혼자 있는 순간이면 내 자신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일처럼 밀려왔다. 숨을 크게 쉬어보아도 갑갑한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았다. 엄마가 자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후 나도 집을 나섰다.

새벽 네 시가 지났지만 해가 뜨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비가 얼굴을 감쌌다. 새벽의 서늘한 기운에 몸이 가볍게 떨렸다. 작은 웅덩이에 고인 물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바닥의 흙냄새와 섞인 신선한 물비린내가 내 정신을 깨웠다.

무작정 걷다 보니 버스가 다니는 큰 길까지 나오게 되었다. 높은 담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내 유년기를 모두 보낸 감정초등학교가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호등의 불이 바뀌자 길을 건너 초등학교로 올라갔다. 철로 만들어진색의 대문을 지나 학교 입구의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았다. 다행히 벤치의 지붕 때문에 구석에 있는 의자는 비에 젖지 않았다.

‘어쩐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학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학을 와서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이런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낯선 동네와 낯선 골목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홉 살의 나는 방과 후에 6학년이었던 오빠만을 기다리며 이 벤치에 앉아 그저 넋을 놓고 있었다. 오빠를 기다리던 귀여운 여동생과 그 여동생을 집에 데려다 놓고서야 외출을 했던 든든한 오빠. 중학교에 입학한 오빠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을 때야 나는 혼자 집으로 갔다.

그 길에서 같은 반에 다니던 한 남자애와 처음 인사를 했다. 그 남자아이가 후에 내 남편이 되었다. 우리는 골목에서 마주쳐도 자주 눈길을 피했다. 나중에 남편과 사귀면서 그 이야기를 하며 참 많이도 웃었다.

남편은 오빠의 대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든든한 남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하루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던 나를 그는 매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약한 엄마는 크고 작은 병으로 자주 병원신세를 지곤 했다. 내가 직장 생활과 병간호를 동시에 하느라 힘겨워 할 때도 내 옆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집안의 장남이었던 그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과 두 명의 동생 뒷바라지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다. 그러면서도 마치 오빠처럼 내 옆에 있어주었다. 그의 20대는 버거운 집안과 여자친구 때문에 꽤나 힘들게 흘러갔을 것이다. 그렇게 각 자의 자리에서 힘들게 20대를 보낸 우리는 같이 나이를 들어갔고 서로의 상황에 말없이 지쳐갔다. 남들은 쉽게 하는 결혼이 우리에게겐 사치였다. 조금씩 모은 돈은 집안 일에 들어가기 일쑤였다. 결혼, 가정, 아이와 같은 말들은 입밖에 꺼내기 힘든 것들이었다. 그런 상황에 아버지의 퇴직금은 한 줄기의 빛이었다.

‘나부터 좀 살자. 제발.’ 혼자서 수없이 이 말을 중얼거리며 독하게 부모님에게서 돈을 빼앗았다. 그 돈으로 결혼식을 하고 방을 얻었다. 이미 오빠의 사업자금으로 절반 이상이 날아간 퇴직금은 나로 인해 바닥을 드러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다. 서로에게 이어진 구질구질한 가족이라는 끈을 끊고 나와 우리끼리 시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고 새로 이어진 가느다란 끈이었던 우리가 그냥 헤어지고 말았다. 가족이 된 우리는 결혼 전과 달리 다툼이 잦았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그 다툼은 평소의 배가 되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연락에 일을 마치자마자 시댁에 가게 되었다. 미리 와 있던 남편은 나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내 팔을 잡아끌어 밖으로 나갔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입을 열었다.

“니가 우리 엄마 거지 취급했나?”

“뭐라고?”

“니가 우리 엄마한테 거지처럼 돈 얘기 좀 그만 하라고 했냐는 말이다.”

남편은 나를 떠밀며 무섭게 몰아세웠다. 눈빛이 평소와 달라 전혀 모르는 남자 같았다. 대체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한 것인가. 며칠 전 나를 찾아와 다짜고짜 삼백만 원을 요구하던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단칼에 거절한 나를 남편에게 어떻게 말했을지 안 봐도 뻔했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본인의 엄마 말만 듣고 나를 몰아붙이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다.

“그래. 내가 어머니 거지 취급했다.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거지 아니면 뭔데?”

나도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악을 썼다. 칼과 같은 말로 남편의 아픈 곳을 찔러댔다. 처음에는 같이 소리를 지르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굳어버린 채 내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미안하다. 아예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길로 집을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질긴 인연이 그 짧은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고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남편에게 의지하던 남편의 가족들. 엄마와 나도 오빠에게 그런 존재였을까. 남편과 오빠의 뒷모습이 겹쳐서 눈에 아른거렸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고개를 젓히고 한참을 있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엄마가 빗소리에 깨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하게 나오느라 엄마의 우산을 들고 나왔다. 버튼을 여러 번 누르고 나서야 우산이 펼쳐졌다. 검은색의 우산은 색이 많이 흐려져 있었고 우산 안쪽은 더 가관이었다. 바람에 몇 번 뒤집어 졌었는지 우산의 살이 성한 것이 없었다.

부러진 살들은 모두 이불을 꿰매는 굵은 실로 칭칭 감겨져 있었다. 그리고 낡아서 구멍이 난 부분은 녹색의 테이프로 발라져 있었다.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 엄마에게 큰 소리를 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다. 굵은 빗줄기를 막아내는 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우산인데 왜 버려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도 여기저기로 배달을 가는 차량들과 오토바이들로 거리는 꽤나 분주했다. 나도 얼른 집으로 돌아가 씻고 가게로 다시 나올 생각이었다.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엄마가 깨지 않기를 바랐다. 옷에 묻은 물기를 대충 털고 안방의 문 앞에서 엄마의 소리를 들었다. 나의 오래된 버릇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집안은 조용했다. 엄마는 집안일을 마치면 항상 잠을 잤다. 그다지 힘들 것도 없는 집안일이 엄마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었다. TV를 켜 놓거나 한 적도 없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집 안에서 나는 가만히 엄마의 숨소리를 들어보았다. 그때처럼 문 앞에서 엄마의 소리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까는 분명 코 고는 소리를 듣고 나갔는데.’

불안함에 방문을 열었다. 엄마가 없었다. 이부자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나간 것이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엄마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어두울 때 밖에 나가면 거의 장님과 마찬가지로였다. 예전에 혼자 우산을 쓰고 병원에 가다가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위로 넘어져 크게 다친 적도 있었다. 자식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 혼자 나섰다가 크고 작은 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얼른 찾아야 했다.

‘내 탓이야. 내가 그냥 집에 있었으면 엄마도 안 나갔을 텐데.’

자책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가는 방향도 모른 채 그저 뛰었다. 뛰다 보니 막다른 골목이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를 한 골목.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다 똑같이 생긴 벽과 창문들이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왜 항상 그 자리인 건가. 아무리 뛰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우산도 다 귀찮아졌다. 그냥 서서 울고만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다.

“여선아. 니 지금 서서 뭐하고 있노?”

오빠였다. 나는 다시 아홉 살의 어린아이로 돌아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도 그 상황이 익숙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

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그저 현관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어두웠던 창이 파란 새벽빛으로 물들었다.

“오빠도 엄마 찾으러 나왔던 거가?”

“그래. 대체 또 어디 간 거고?”

“가게에 한 번 들러볼까?”

“그래. 거기 한 번 가보자. 거기 아니면 어디에 있겠노?”

아까와는 다르게 마음이 안정된 채 집을 나왔다. 웬지 엄마에게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을 나서면서 펼쳤던 우산을 접고 오빠의 뒤를 따랐다. 바닥에는 더 이상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다. 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해 걷다 보니 어느새 카페 앞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가게의 문이 반쯤 열려있었다. 문틈으로 주방에 있는 엄마가 보였다. 손에는 물에 젖은 행주가 들려있었다.

“엄마. 여기서 혼자 뭐하노?”

문을 마저 열어젖히고 오빠가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한소리를 하려 했던 나는 입을 다물었다.

“니야 말로 술 먹은 놈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녔노? 니가 차 끌고 나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차를 끌고 가기는 어디를 끌고 가요? 그냥 여기저기 갑갑해서 걸어 다녔구만.” 역시나 그랬다. 엄마는 오빠 걱정 때문에 정신없이 집을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집에 안 가고 왜 가게로 나왔노? 이 새벽에.”

걱정했던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 행주를 짜고 있는 엄마에게 물었다.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오전에 떡 받을 게 생각나서 왔지.”

“떡? 아 맞다. 개업 떡.”

주문해 놓은 떡을 받으러 나와 있었다는 엄마의 말에 기운이 빠졌다. 오빠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혔다. 모두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있었다. 떡집 아저씨가 도착해서야 셋은 표정을 되찾았다.

“아이고, 가게가 아주 번듯하네. 장사 잘 되겠다.”

아저씨는 떡 상자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침을 여는 시원하고 밝은 목소리였다.

“그나저나 떡도 맛있게 뽑아 왔는데 커피 한 잔도 안 주요?”

저간의 사정을 알 리 없는 떡집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해요. 아직 기계를 켜지 않아서요. 나중에 맛있게 뽑아서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아저씨에게 첫 잔을 드리고 싶어 내가 대답했다.

“안 그래도 나중에 작은 잔에 담아서 동네 분들에게 대접할 생각이었어요.”

내 말에 오빠가 힐끔 쳐다보며 입을 떼려다가 말았다. 아저씨가 나가고 나서야 오빠는 하려던 말을 했다.

“어제는 커피 한 잔에 돈이 얼마데 그냥 주냐며 난리 더니, 생각이 언제 바뀌었냐?”

오빠의 비꼬는 듯한 말투 때문에 나도 되받아치려 했지만 그만두었다. 말투와는 달리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오빠의 눈을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날씨 참 좋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며 말했다. 새벽녘의 빗방울이 그렇게 굵더니. 거짓말처럼 비구름이 걷혀있었다.

“너저 아버지가 도와주시나 보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네.”

한참을 서서 하늘을 보던 엄마가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도 무언의 공감을 표하며 따뜻한 떡을 한 입씩 베어 물었다.

조출한 개업식을 지내고 나니 문화마을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아직 손에 익지 않은 기계 때문에 애를 먹을 때도 있었지만 밀려드는 손님에 즐거운 비명이 라도 지르고 싶은 지경이었다. 낯선 관광객들의 말투조차 우리를 축하해주는 노래처럼 들릴 정도였다.

문화마을의 축제는 감천만의 축제가 아니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과 오늘을 위해 공연을 준비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주인공이었다.

열린 문 밖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같은 모양의 티셔츠를 입고 음향기기 등을 옮기고 있었다. 오후 늦게 열리는 행사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다. 시원한 커피를 몇 잔 들고 그 사람들에게로 갔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마주친 사람들 모두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가게마다 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그 문들을 통해 제각각의 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음식과 꽃 그리고 사람의 향이 동네를 휘감고 있었다.

좋은 기분에 가게로 돌아와 보니 정신없이 손님을 맞고 있는 오빠가 보였다.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커피를 뽑고 계산을 하고 얼음주머니를 옮기고 있었다.

오빠는 예전의 오빠가 아니었다. 이제야 제 옷을 입은 듯이 편안해 보였고 서른아홉의 든든한 남자가 된 것 같았다.

“야, 권여선. 뭘 보고 섰노? 바쁜 거 안 보이냐?”

“어. 알겠따. 커피랑 카운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는 옮기던 거 마저 옮겨라.”

자리를 잡고 한참을 말없이 일했다. 한 차례의 소나기처럼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빈 상자와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었다. 오빠도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행사장의 음악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간간이 새어 들어왔다. 문을 등지고 종이컵을 정리할 때 출입구에 걸려있는 벨이 흔들렸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답이 없었다. 바빠 움직이던 내 손이 멈췄다. 커피 향 사이로 익숙한 체취가 전해져 왔다. 천천히 뒤를 돌아 그를 보았다. 꽃다발을 손에 쥔 채 남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축하한다.”

나는 꽃다발을 받아 들었다. 내 얼굴에 눈물과 미소가 함께 찾아왔다.

# 다대포 해님이 - 산문 가작

정 애 경

해거름의 다대포다. 신나게 파도를 타던 한 때의 사람들은 모래톱으로 돌아오고, 바닷바람을 가르던 보트 두엇도 해변공원과 맞닿은 수로로 들어선다. 바다를 등지고 물을 오르는 몇 마리 물새들의 나지막한 날갯짓에도 귀소의 본능이 느껴진다. 웬지 나도 삶의 궤적을 더듬어 어디론가 돌아가야 할 것만 같다.

지나온 시간을 주섬주섬 뒤적이다. 굳어진 관절을 풀고 삶이라는 고단함을 기댈 수 있는 추억이라도 하나 건져 올린다면 저물녘의 헛헛함이 덜 할 것만 같다. 나도 저들처럼 서둘러 매무새를 추스르고 안온한 시간 속에 나지막이 눕고 싶다. 오래전 그 날처럼.

교사였던 아버지는 다정다감한 분이였다. 아침마다 나를 무릎에 앉히고 긴 머리를 손수 빗겨 주셨다. 휴일이면 곱게 단장시킨 우리들을 앞장세우고 동백섬과 송도 앞바다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곤 하셨다. 사진 속의 우리는 늘 미소 반, 함박웃음 반이었다.

이곳 다대포 해안에 텐트를 쳤던 날도 지금처럼 늦여름 즈음이었을 것이다. 종일 조개를 잡고, 물과 함께 찰박이던 우리는 해질 무렵 아버지의 손에 꺼들리다 시피 물 밖으로 나왔다. 밤이 되자 우리 가족은 적당히 데워진 모래를 깔고 누웠다. ‘저건 백조자리, 저건 전갈자리...’ 검은 하늘에 점점이 박힌 별들과 눈을 맞춘 채 아버지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조근 조근 일러 주셨다. 무어 그리 신바람이 났던지, 우리 삼남매는 ‘까르륵, 까르륵’ 연신 웃음보를 터트렸다. 잠도 잊은 채 밤이 이속하도록 새떼처럼 조잘거렸다. 검푸른 바다와 검푸른 하늘, 그 속에서 유년의 어느 밤이 그렇게 깊어 갔다. 때로 희미하게 때로 뚜렷하게 아버지가 있는 풍경이 되어 주는 추억이다.

내가 막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이었을 게다. 아버지는 불쾌하게 만취되어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무슨 연유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맨얼굴의 아버지를 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런 아버지가 점점 멀고 두렵게만 느껴졌다.

얼마지 않아 우리 가정에 낯선 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다. 박봉으로 살림을 꾸리던 어머니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시도했던 발버둥이 참담한 결과를 몰

고 왔다.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이 사라졌고, 교감 승진을 코앞에 두었던 아버지도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막 사회의 초년병이던 때였다.

군대로, 단칸 셋방으로, 시골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어떻게 하든 살아야만 했으므로 각자의 방도를 찾아 나섰던 셈이다.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 급작스레 홀로서기를 배워가면서 우리 모두의 초상은 이지러졌다. 모진 세상에 맨몸으로 내몰린 우리는 강해져야만 했다. 누구보다 다정했던 형제들이었건만 서로에게 날을 세우는 일이 심심찮게 생겨났다. 상처가 상처를 부르고, 피차 영영 맞출 수 없는 퍼즐 조각이 되어 버릴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도 몇 번인가 있었다. 가족이라는 다정한 이름으로도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던 시절이었다. 그 이후로 다대포의 깊고도 푸르렀던 밤의 기억은 이따금 떠올라 가슴을 시리게 만들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겨우 살림을 추스르다가 싶을 즈음, 어머니께서 쓰러지고 말았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병간호를 자청하셨다. 낯선 도시로 터를 옮기고 두 분만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혼자서는 바깥출입이 어려웠던 어머니를 수발하는 일이 어찌 쉬웠으랴. 결국 아버지마저 병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순간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새삼 목젓이 얼얼해지고 눈가에 물기가 잡힌다. 먼 수평선에 시선을 둔 채 눈물을 삼킨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그런지 어느새 물살이 발끝께로 바싹 다가와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바다의 끝자락이 한 몸으로 저녁노을을 받아내는 풍광이 문득 반갑다. 실로 간만에 만나는 순정한 노을이다. 아버지와 나란히 바라보았던 그날의 낙조처럼.

무의식중에라도 유년의 그 밤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지, 결혼을 하고 얼마 후 나는 다대포로 이사를 왔다. 낮이면 몰운대의 숲길을 산책하고, 해질 무렵이면 무작정 바다로 나와 추억의 언저리를 기웃거리기도 한다. 바다를 사랑했고, 자주 바다를 찾아 고달픈 마음을 달래던 아버지를 생각한다. 어찌면 바다는 아버지의 남모르는 고충을 들어주는 귀요, 따뜻하게 손잡고 등 두드려 주는 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바다가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떠나가신지 이태 만에 부산을 찾으셨던 때, 나는 아버지를 다대포 해변으로 모시고 나왔다. 마치 그림처럼 미동도 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언저리 의중을 내비치셨다. 내가 있는 다대포로 옮겨오고 싶다고. 말만이라도

그리하시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날 나는 그 어떤 대답도 시원스레 뱉어내지 않았다.

한바탕 바람이 불면서 고요하던 바다에 물살이 일었다. 내 안에도 파란이 일었다. 드넓은 해변, 휠체어에 몸을 실은 어머니와 걸음이 불편하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바다를 향해 서 계시고, 나는 망연하게 두 분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는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다를 돌아섰지만, 그것을 끝으로 더는 기회가 없어져 버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등잔불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던 해가 바닷물에 발목을 적신다. 멀리 가덕도 인근의 자잘한 섬들이 실루엣만 남기고 석양의 잔영에 가려진다. 그 위로 허허실실 사람 좋은 웃음을 만면에 띠고 계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진다. 더는 지난 시간으로 하여 아파하지 말라고 다독다독 등을 두드려 주시는 듯하다. 세상의 풍파에 굳은살이 앓은 이즈음, 거품 나는 맥주 한 잔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털어낼 수 있을 텐데 아버지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울컥, 다시 목이 멘다.

낮선 곳에서 익숙해진 그리움으로 보내셨을 아버지의 노년. 단 한 번 질편하게 속내를 풀어 놓지 못하셨던 아버지의 시간이 이제야 짙은 그리움으로 덧칠된다. 멀리 수평선을 넘어가는 저 태양처럼, 마지막을 앞둔 그 즈음에라도 가슴의 응어리를 따뜻하게 받아 드렸으면 좋았으련만. 왜 늘 후회는 한 발 늦게 오는 것인지.

아버지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하셨던 바다, 다대포. 그 바다를 보며 나이 들어가는 딸도 더러는 그때의 아버지처럼 서럽다. 그러나 다시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당당히 서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일 거라고 추억거리며 습한 시간을 빠져나온다. 오래전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바다를 털고 담담하게 일어선다. 아버지에 대한 회한도, 그로 인한 자책도 태양과 함께 시나브로 산자락을 넘어 간다.

노을은 산 자의 그리움까지 태워버린 모양이다.

# 을숙도 풍경 - 산문 입선

박혜자

고니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힘차게 날아올랐다. 나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흥얼거렸다. 백조가 목을 곧게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훗호, 훗호, 훗호' 하는 나팔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며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에 훌쩍 빠졌다. 무용수의 각선미와 우아한 포즈는 황홀했다. 희고 큰 새로 변신한 무용수의 몸짓은 공연이 끝나고도 지워지지 않았다. 을숙도에서 나는 그 때의 흥분을 다시 느끼고 있다.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있으면 을숙도를 찾는다. 고니를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보지 못해도 좋았다. 을숙도엔 기다리라는 전갈을 넣지 않아도 새는 언제 어느 때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을숙도는 떠나고 보내고 찾아오고 맞이하는 일이 반복되는 새들의 터미널이며 자연의 순리가 통하는 곳이다.

내 고향은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골이었다. 손가락으로 헤아릴 만큼 드나드는 사람이 적었던 우리 동네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자 낯선 사람들이 찾아 들었다.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우리는 텃새였고 그들은 철새였다. 그들은 우리 동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사거리를 중심으로 가게가 들어서자 조용하던 동네가 분주해졌다. 이웃집의 손가락 숫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철새가 텃새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공존이 시작되었다.

매비둘기나 딱새,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사계절을 낙동강에서 보낸다. 텃새이지만 텃새 부리지 않고 나그네새와 철새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붉은머리오목눈이와 고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 다정하다.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다 마주보기도 한다. 고니가 낙동강을 떠나 있었던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붉은머리오목눈이가 미주알고주알 일러주고 고니는 자기가 보고들은 다른 세상의 일을 알려주며 교감하는 것 같다.

철새들은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 더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더 힘차게 노래한다.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을숙도에는 하늘색과 연한풀잎색의 전동차 을숙이와 낙동이 있다. 전동차를 타고 습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두 발로 걷는 것이 좋다. 걸으면서 부

표에 올라 중심잡기를 하며 장난치는 갈매기에게 손을 흔들고 갈대숲을 헤집고 다니는 갈게와 눈인사도 한다.

강물은 모두가 제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 물줄기는 앞선 물줄기의 꿈무늬를 놓칠세라 꼭 잡고 따라간다. 행여라도 저 때문에 물줄기가 어긋날까 결눈질도 하지 않는다. 새암에서 흘러나온 물은 모이고 모여 무리를 만들었다. 무리는 증발하기도 하고 생명을 키우기도 하고 비가 더해져 더 큰 무리를 만들면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까지 흘러왔다. 무리는 바다라는 더 큰 무리와 합쳐져서 더 많은 생명을 보듬고 키울 것이다.

갈대가 바람을 따라 움직이며 바람악기를 연주한다. 거미가 갈대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여 집을 짓고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 땀별 아래에서 여덟 개의 다리를 활짝 벌리고 제왕처럼 당당하게 먹이를 기다리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열기설기 엮어 놓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줄에는 지나가는 바람도 걸리지 않는다. 몰아치는 바람에 거미줄이 끊어질 듯 낭창거리지만 명주실에 버금가는 강도를 가진 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거미는 물에 날썰서 빠져도 살아남는다. 비가 거미줄을 때리고 부숴도 다음날이면 다시 나타나 햇살에 영롱이는 물방울을 달고 흔들어 댄다. 나는 가수 거미의 노래를 좋아한다. 탁 트인 목소리에 풍부한 성량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헤치고 나갈 것처럼 힘차고 시원하다.

낙동강 모래톱에 살면서 학교를 다녔던 김정한의 ‘모래톱이야기’ 속의 건우가 생각한다. 거미처럼 단단하게 생명줄을 잡고 살라며 할아버지는 건우에게 거미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날마다 거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손자를 염려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뜨겁다.

탐방체험장 옥상의 망원경에 눈을 대고 모래톱을 살피다가 맹금머리등에서 멈춘다. 한 때는 을숙도와 연결된 섬이었으나 선박통항로 확보로 잘린 후로 바다속의 외로운 섬이 되었다.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나타난다. 맹금머리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독수리일 줄 알았는데 갈매기다.

강물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모래의 등을 토닥인다. 모래가 강을 바싹 꺼안으며 싸아아싸아아 울자 새가 강물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고니가 하얀꽃으로 강을 수 놓았다. 날이 따뜻해지면 고니가 자리를 뜨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새가 찾아 올 것이다. 인생사 돌고 돌듯이 자연도 돌고 돈다. 영원한 내 것도 네 것도 없다.

낙동강 유람 선착장의 시멘트벽에 갈매기가 짝, 하고 똥을 산다. 흰색 똥이 시멘트벽을 타고 흘러내린다. 꼭 흰색 물감으로 칠을 한 것 같다. 갈매기가 그려 놓은 새똥 그림이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같기도 하고 반구대 암각화 같기도 하다.

올해는 고니가 을숙도에 오래 머문다. 고니를 오래 보는 것은 좋지만 자연에 역행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 교란이 심화되면서 봄에 성장하는 소나무의 가지가 가을에도 성장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텃새와 철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환경을 오염시켜 자연의 순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갈대숲에 뒹굴고 있는 비닐을 주웠다.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이어졌다.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면서 숫자도 줄어들었다. 생태학자들은 생물종을 다양하게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생태 공원을 만들었다. 생태 공원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다. 을숙도도 그렇다.

종신형을 선고 받고 악마도에 유배된 빠빠용의 죄목은 인생을 낭비한 죄였다. 그렇다면 식물은 계절을 무시하고 꽃을 피운 죄, 새는 계절을 무시하고 이동을 늦춘 죄. 사람에게서는 환경오염으로 생태 교란을 일으킨 죄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머리 위로 매가 날아간다. 멸종위기인 매를 을숙도에서 종종 만난다. 완전 멸종된 원앙이사촌처럼 매도 멸종 될까 걱정이다. 표본으로만 남아있는 원앙이사촌의 표본 세 점 중 두 점이 낙동강에서 살던 것이다. 원앙이사촌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 낙동강이니 낙동강의 환경이 어느 곳보다 뛰어나고 먹이가 풍부했다는 증거다. 많이 먹고 새끼를 번식시키며 오래오래 낙동강에 남아달라고 매에게 손을 흔들었다. 매가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바람을 맞으며 걷기엔 을숙도만한 곳이 없다. 똑 같은 장소지만 철 따라 시간 따라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고 철 따라 찾아오는 새가 있어 나는 이곳이 좋다.

숫대 앞에서 두 손을 모은다. 올해도 을숙도를 찾아온 철새들 잘 쉬었다가게 하고 텃새들은 을숙도 잘 지키며 사람과 새가 어우러져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숫대가 내 소망을 하늘나라에 잘 전달해 주었을 것이다.

# 무지개 공단 - 산문 입선

신 규 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 . 한 여름 열대야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바닥분수대를 중심으로 겹겹이 둘러앉는다. 주변의 전등이 꺼지고 둥근 바닥에는 LED조명이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화려하게 빛난다. 경쾌한 음악소리와 함께 부드럽고 강한 물줄기가 교차하며 하늘로 치솟는다. 내 마음은 커다란 물래가 되어 끊임없이 물을 실어 나른다.

분수는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가 되자고 한다. 아이들은 분수와 같이 춤을 추며 물놀이 장을 만들고 엄마 아빠를 부른다. 많은 외국인도 함께하며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를 그려낸다. 흥겨운 음악과 짜릿한 즐거움은 저마다의 빛을 뿜어 내며 탄성을 지른다. 물줄기를 따라 오르내리는 물안개 속에 크고 작은 무지개가 뜬다.

나는 무지개를 좋아한다. 고향집 윗마을 낙수대 솔숲 언덕에 자리한 물레방아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다.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되어 초등학교시절 내내 소풍을 갔던 곳이다. 영호강 맑은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물방아의 물레는 폭이 좁아지고 물레는 점점 커진다.

덕유산 자락 고체면 물안실마을에 진외가가 있었다. 언덕위에 높이 앉은 커다란 방앗간의 지붕을 이고 벽을 두른 양철판은 붉게 녹슬어 있었다. 방아를 찼으면 겨가 많이 석여 나와 키로 까불러 밥을 지었다. 여름이면 쌍무지개가 뜨고 겨울이면 죽순처럼 매달린 고드름 속에 핀 얼음무지개는 삶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참으로 철없을 때 이야기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몸집이 훨씬 큰 아이를 피부색이 다르고, 곱슬머리라고 놀렸다. 대항하기는커녕 모른 척 피하여 갔다. 따라가며 놀려대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되돌아서 노려본다. 어린 내가 놀린다고 때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온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어 혼을 냈었다.

아버지와 나이가 같은 집안 조카가 중국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만주로 이사를 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 한중국교정상화가 되면서 편지연락이 되었다.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고향을 오면서 이부자리 두 채보다 더 큰 보따리에 한약재를 싸가지고 왔었다. 전 재산을 팔아 삼년을

넘게 약제를 사서 모았다고 했다.

온 집안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약제를 다 팔아야 중국으로 돌아 갈수 있다는 것이다. 일가친척이 모두 약을 팔러 나서고, 나도 중국 약장수가 되었다. 약성분도 모르면서 몸에 좋다는 효과를 설명하고, 포장이 열악하고 유효기간도 없는 약을 몇 달에 걸쳐 모두 팔고 돌아갔다. 그 뒤 아들 부부가 서울로 돈벌이를 왔었다. 안타까운 일은 정식 외국인 근로자로 일할 수없는 처지였고 조카가 돌아가신 뒤 소식이 끊겼다.

나보다 서른 살이나 많은 고종사촌 형님이 일본에 살았다. 외롭게 사시다가 나이가 많아 고향을 찾아와 외삼촌인 아버지와 가까이 지냈다. 읍내에 방 한 칸을 얻어 거주하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석 달에 한 번씩 일본을 다녀왔다. 그때마다 헌옷가지나 재활용이 가능한 생필품을 가지고와 나누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 했다. 천리타향 외국에서 똑같이 어렵게 살았지만 형님은 노년을 편하게 지냈다.

격변하는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살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 두고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파독 광부나 간호원을 시작으로 중동건설 현장이나 해외 근로자로 일했다. 경제가 발전되고 산업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라게 되면서 열악한 환경이나 힘들고 위험한 일은 회피하는 시대가 되었다. IT산업이 발달하고 정보가 폭넓게 교환 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가속화 시켰다.

나는 외국인에게 역사의 우월성을 표출하고 푸대접했다. 못살고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고 호구지책으로 왔다는 편견을 갖기도 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도 저질렀다. 배운 것이 모자란다고 멸시하고, 문화와 종교적 갈등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철없을 때 일을 이제야 깨우치는 것일까. 고향집 이웃에 사는 집안 동생이 결혼을 했다. 동남아에서 시집온 제수씨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조카는 가끔씩 보는 내가 낯설기도 하련만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한다. 노인들만 있는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웃음꽃을 피워 준다. 동생에게 시집온 외국인 제수씨가 고맙기만 하다.

내 아이가 자라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한다. 글로벌 시대의 기러기 아빠가 되어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을 한다. 일가친척이 다문화 가정을 이뤘다.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열기위해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 애쓴다.

내 고향마을 앞들에는 둔병이 많았다. 다랭이는 둔병에는 우렁이가 수중생물과 함께 추운 겨울을 난다. 봄이 되면 개구리, 도롱뇽이 알에서 깨어나 무리를 이룬다. 여름이면 우렁이 친환경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다. 농부의 진솔한 삶을 오롯이 담아내는 마중물이다.

무지개공단에서 흥티 둔병을 만났다.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빛 무지개가 새롭게 뜬다. 외국인은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멘토로 선택해 찾아온 유학생과 전문 기술자다. 우리가 좋아 시집 장가를 오고, 건설현장의 단순노동이나 공단의 근로자로 일하고 싶어 찾아온 이웃이다. 둔병에는 다문화의 희망을 담고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 다양성의 꿈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홍예문虹霓門을 만들고 무지개다리를 놓았나 보다.